

남산의 부장들

솔레어파트너스(유) 제작

제작사 (주)젬스톤픽처스 (주)하이프미디어코프
원작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각본 우민호 이지민
감독 우민호

1. 남산 중앙정보부 / 밤

어둠 속을 뚫고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

중앙정보부 전경이 은은한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다.

건물 앞에 멈춰서는 차에서 내리는 김규평 중앙정보부장.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풍모와 기세. 군인으로 살아왔던 삶을 엿볼 수 있다.

강창수 수행비서

(다가와) 각하께서 궁정동에 도착하셨습니다.

김부장

... (달을 본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다.

김부장

(울조리듯 내뿜는다) 바람 없는 천지에 꽃이 피겠나.

타이틀 뜬다. '남산의 부장들'

2. 미국 워싱턴 프레이저 청문회장 / 낮

인서트) 국회의사당 전경.

책상 위에 가득 쌓인 방대한 한국 관련 공문서와 자료들.

한국 관련 각국 언론들의 기사 스크랩.

'코리아 게이트'라는 타이틀 아래 한국 로비스트와 그들에게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미 의원들의 명단이 복잡하게 얹혀있다.

위원장

(영) 하원의원 435명 전원에게 윤리위원장 명의로 보낸 설문지에 단 한 명만 제외한 434명이 한국 관계자로부터 100달러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주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한국은 1970년도부터 매년 50만 달러에서 백만 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포함한 뇌물을 뿌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체불명의 한국여자, 담배를 꺼내 입에 문다.

위원장

(영) 오늘 청문회에 나설 증인은 코리아 게이트의 핵심적인 증언을 해 줄 분입니다.
한국 중앙정보부 전 부장 박용각입니다.

박용각 전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다.

‘파파파박’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선글라스를 쓴 박부장, 자리에 앉는다.

위원장

(영) 우선 중앙정보부. KCIA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인 통역사가 박부장 옆에 앉아 통역한다.

박부장

프레이저 위원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매너 넘치는) 먼저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국제기구 소위원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비장하게 민주투사 빙의)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정치적 활동을 할 야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인권이 유린되고 정의가 불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이 증언대에 선 것입니다! 네! 전 한국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였습니다. 썩은 권력을 탐욕스럽게 먹던 제가 모든 걸 토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 냄새나는 썩은 권력의 맨 끝에 있는 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입니다! (눈물까지 맺혀) 저는 조국에 등을 돌린 배신자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박용각이는 민주주의의 순교자로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위원장

(영) 증인, 질문에 집중해주시요. 중앙정보부가 뭐니까?

박부장

... 군사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군부가 분단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 CIA를 모델로 한국형 정보부를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CIA랑 FBI를 합쳐놓은 것인데 결국 소련 KGB처럼 거대한 권력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국회, 정당, 헌법, 군, 경찰보다 위에 있는 기관으로 중앙정보부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는 대통령 한 명 뿐입니다.

위원1

(영) 미 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로비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게 맞습니까?

박부장

네. 주한미군 주둔과 군 지원금 15억 달러 의회 최종 승인을 위해서요. 또 미국에서 인권 관련해서 남한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 의회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거죠.

위원2

(영) 하버드 교수한테 박대통령이 <타임>지 표지에 나오게 추천해 주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맞습니까?

박부장

박통이 <타임>지 표지에 왜 나와!
뭐 나올 수는 있겠다! 독!재!자! 프레지던트 팍! (경박하게 웃으면)

위원3

(영) (서류를 보며) 월남전 참전 용사 지원금을 미군과 같은 수준으로 받기로 했는데 한국 병사들은 5분의 1만 받았네요. 나머지는 어디 간 겁니까?

박부장 '인 마이 포켓' 제스처를 취한다.

위원장

(영) 한국 중앙정보부가 단지 미국 내에서 반한파에 대한 인권탄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정희 여론과 활동을 무마하기 위해 대규모 회유, 매수, 협박,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박부장

그게 중앙정보부 일이니까요. 정치공작. 언론인 매수. 테러. 불법 선거. 돈으로 안 되면 폭력으로.

위원장

(영) 그럼. 중앙정보부와 마피아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박부장

... 없습니다.

박부장의 사자후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방청석의 사람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체불명의 한국여자, 선글라스를 끼고 밖으로 나간다.

3. 청와대 / 낮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는 김부장의 차. 길을 따라 청와대 앞에 도착한다.
차에서 내리는 김부장.

4. 청와대 복도 / 부속실 / 이발소 / 집무실 / 낮

복도를 걸어오는 김부장. 부속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김부장
각하 계시지?

비서관
이발소에 계십니다.

부속실 안에 있는 대통령 전용 이발소로 향하는 김부장.
자리에 누워 면도를 받고 있는 박통.
그리고 이발소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는 곽상천 경호실장.
기분 나쁜 얼굴로 김부장을 힐끔 보면,

김부장
(박통에게 다가와) 김대사랑 전장관이 청문회까지는 못 가게 애는 썼습니다만..

곽실장
(말 자르며) 이거 이거 북한 김일성이라도 안 할 도발을 이 나라 전직 정보부장이 했어!
박용각이 나라 팔아먹을 동안 정보부장은 뭐 했어!

김부장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른다)

박통
회고록 얘기는 뭐야?

김부장
기자들하고 FBI한테 흘리고 있습니다. 박부장은 지금 어떻게든 주목을 끄는 게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통
그 배신자 새끼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곽실장
당장 잡아 와 청와대 뒷마당 무궁화 퇴비로 쓰셔야..

김부장
(말 자르며 곽실장을 노려본다) 제가 미국 가서 조용히 해결하겠습니다.

박통
이게 조용히 해결될 문제야! 박용각이 청문회에서 하는 소리 못 들었어?

김부장

그러기에 더욱이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박통
양키 새끼들..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로 향하는 박통. 그 뒤를 따르는 김부장과 곽실장.

박통
경호실장은 가서 일봐. 정보부장이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곽실장을 남겨두고 집무실로 걸어나는 박통과 김부장.

곽실장
... (기분 나쁜 얼굴로 김부장을 쳐다본다)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무는 박통.

박통
그 새끼가 나를..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할 인간이라고 눈에 눈물까지 달고서
떠들었어. 그런 새끼를 어떻게 할 건데!

김부장
일단 박부장이 쓰고 있는 회고록부터 가져오겠습니다.

박통
그 새끼가 안 주면? 어쩔 거야?

김부장
... 가져오겠습니다.

박통
(연기를 내뿜고) 김부장.

김부장
예. 각하.

박통
김부장도 내가 그만두길 바라나?

김부장
...

박통
내가 오래하긴 했지.. 안 그래?

김부장

...

줄담배를 입에 무는 박통, 선뜻 말을 못 하는 김부장의 눈치를 살핀다.

김부장
... 제가 각하 옆을 지키겠습니다.

5. 워싱턴 달라스 공항 / 낮

인서트) 달라스 공항의 전경.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함대용 중정 요원이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공항에서 나오는 김부장, 차를 타고 떠난다.

6. 달리는 차 안 / 낮

김부장, 운전하는 함대용 요원의 보고를 받는다.

함대용 요원
데보라 심이 브로커 역을 했습니다.

김부장
심여사가?

함대용 요원
예. 박부장님은 지금 한국서 자기 죽이고 싶어도 미국 눈치 보느라 못 죽인다고 대놓고
떠들고 다니십니다.

김부장, 박부장을 감시하며 촬영한 사진들을 본다.

잔뜩 경계한 채 차에 오르는 박부장. 레스토랑에서 데보라 심을 만나는 박부장.

사진 속 데보라 심을 주시하는 김부장.

그녀는 프레이저 청문회장에 앉아있던 정체불명의 한국여자다.

김부장
책은 직접 써? 얼마나 썼대?

함대용 요원

서영천 기자라고 한국서 연수 왔는데 그 친구가 돕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기차타고 와서 작업하고 돌아갑니다.

김부장

박부장 원고 무조건 들고 서울 가야 해. 그 서기자 알아 봐.

함대용 요원

예.

김부장, 박부장을 감시하며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본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차이나타운에 나타난 박부장. 인상을 팍 쓰고 있다.

7. 차이나타운 / 낮

함대용 요원

(소리) 박부장님이 요즘 차이나타운 침술원에 가느라 자주 외출을 합니다.

도착하는 차에서 내리는 박부장. 허리통증에 얼굴이 구겨진다
덩치 큰 한국인 경호원과 함께 허름한 침술원 건물로 들어간다.

8. 침술원 / 낮

침대에 누워 중국인 한의사에게 침을 맞는 박부장.
중국인 한의사가 나가고 허리에 침을 잔뜩 꽂은 채 혼자 진료실에 엎드려 누워있는 박부장.
조용한 진료실. 벽에 서 있는 낡은 인체 모형 상. 눈 감고 있는 박부장.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총대에서 총을 꺼낸다.
몸을 숨기고 커튼이 쳐진 진료실 입구를 주시하면,
검은 그림자가 커튼을 찢히고 진료실로 들어선다.
박부장, 총구를 겨누면.. 김부장이다.

김부장

(박부장의 허리에 꽂힌 침을 빼며 웃는다) 나야 나.

잠시 후, 친구인 김부장과 얘기하는 박부장.
그러나 손을 뻗을 수 있는 자리에 딱 보란 듯이 총을 놓는다.

박부장

나 잡으러 왔냐?

김부장
모시러 왔지.

박부장
부장님이 되셨어. 그 자리가 어디라고 덩석 앉았대?
경호실장이 짝이라며? 헤에. 너도 인생에 고가 많다.

김부장
돌아가자.

박부장
내가 왜 미국으로 망명했는지 몰라?

김부장
그렇게 분하나?

박부장
(피식) 내가 당한 거 너도 똑같이 당한다.

김부장
...

박부장
난 미국이 좋다. 너도 여기 와서 살아. 험한 꼴 당하지 말고.

김부장
책 쓴다며?

박부장
처칠이 노벨문학상 받은 거 알지? 나도 문학에 소질이 있더라고.

김부장
노벨상 상금이랑 똑같이 쳐줄 테니 원고 내놔.

박부장
내가 돈 벌려고 썼는지 알아! 세상사람 다 몰라도 규평이 너는 그럼 안 되지!
내가 이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한 자 한 자 피를 토해내며 썼어. 왜! 청춘과 목숨을 걸고
지킨 내 조국이! 혁명으로 다시 세운 내 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똥 밭을 구르면서..

김부장
(말 자르며) 원고 내놔. 내놓고 각하께 용서 빌어.

박부장
그걸 내놓으면 나는 죽지.

김부장
안 내놓으면 진짜 죽어.

박부장
협박하냐?

김부장
... 나 내일 출국한다. 정해. (일어나면)

박부장
야, 뭘 그렇게 빨리 가. 놀다 가.

김부장
내일까지야. (나간다)

혼자 남은 박부장. 얼굴에 장난기를 싹 걷고 매섭게 머리를 굴린다.

9. 레스토랑 / 낮

함대용 요원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데보라 심.
창가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김부장과 마주앉는다.

김부장
박부장이 심여사 아니었으면 못할 일을 감히 저질렀습니다.

데보라 심
(찔리니까 먼저 치고 나가는) 나도 미국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서울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로비스트를 양공주로 알아. 여자가 영어하면 다 양공주야. 아주 일 터지니까 싹 돌변하는데.

김부장
그렇다고 혼자 살겠다고 박부장을 거기 세우면 어쩍니까.

데보라 심
나 진짜 억울해요. 김부장님. 내가 미국 유학 와서 어떻게 로비스트가 됐는지 잘 아시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그 더러운 인종차별 다 겪으면서.. 이것들은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구분도 못해.. 내가 어디 공산국가에서 온 줄 알아..

김부장
(담배를 입에 물면)

데보라 심
내가 그 핍박을 받아가며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미국 의원들 일일이 만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 분단이다 보니 나라 자체가 약간 옵션이
있다. 박대통령이 추구하는 한국식 민주주의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어디 한국 민속촌에 있는
건 줄 알아. 그래도 내가 모국이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닌 건데, 코리아 게이트
터지니까 한국은 나 몰라라 하고, FBI는 나보고 협조 안하면 감옥 보낸다고 하지.
나보고 어찌라고?

종업원이 다가와 커피를 내려놓는다.

김부장
땡큐. (커피를 마시고) 그래서 박부장 앞세워서 한국을 팔아먹었어요?
한국에 안 갈 거예요?

데보라 심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는데. 난 고향을 못가!

김부장
나쁜 여자도 돈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김부장, 두툼한 돈 봉투를 데보라 심 앞에 내놓는다.

김부장
이제부터 박부장은 심여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뭐든지 즉각 저 친구한테 알리고.

데보라 심
... (식당 입구에 서있는 함대용을 보면)

김부장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연락 좀 하랍니다.

데보라 심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담배를 끄고 나가는 김부장. 홀로 남아 갈등하는 데보라 심.

10. 데보라 심의 집 / 밤

인서트) 조용한 워싱턴 주택가의 전경.

초조한 얼굴로 창밖을 감시하는 박부장. 어둠 속에 쥐색 세단이 서 있다.

데보라 심

(다가와 위스키를 건네며) 도대체 누가 미행한다는 거야? 대사관 애들 아니야?

박부장

(버럭) 내가 개네를 몰라!

데보라 심

꼭 저승사자 본 사람 같네.

박부장

그래. 저승사자가 태평양을 건너왔다. (벌컥 위스키를 마시면)

데보라 심

우리 박부장님 미국 사람 다 됐어. 망상. 강박. 이런 거 여기 애들 두통 같은 거야.

정신과 가면 돼.

박부장

심여사까지 나 미친놈 취급하면 나 그냥 뒤질란다! 며칠째 우리 집 주위를 빙빙 도는 차가 있어. 오늘도 우리 만나는 거 알고 따라 왔다고! (다시 창밖을 감시하면)

데보라 심

김부장은 뭐래?

박부장

살고 싶으면 회고록 넘기란다.

데보라 심

넘길 거야?

박부장

... 그거나 확실히 물어봐. 나 미행하는 애들 여기 애들 아니냐고?

데보라 심

원래 암살은 총을 쏜 자보다 총알을 누가 댔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 있어요.

박부장

...?

11. 링컨 메모리얼 파크 / 낮

벤치에 앉아 워싱턴포스트를 읽는 김부장.

박부장과 박통의 사진을 배경으로 코리아 게이트가 1면을 장식하고 있다.

어느새 다가와 옆에 앉는 박부장.

박부장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을 보고) 자유롭다.. 자유로워...

규평아, 너 혁명 왜 했냐?

김부장

넌 왜 했는데?

박부장

... 니가 하자고 했잖아?

김부장

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니가 아니고?

박부장

내가? (잠시 생각하다가) 씨발.. 모르겠다..

김부장

가져왔지?

박부장 주위를 경계하며 김부장에게 서류가방을 건넨다.

김부장, 가방을 연다. 원고가 들어있다.

김부장

한식 때 선산 가서 풀도 깎아놓을 테니까. 조심하게 있다 잠잠해지면 돌아와.

박부장

김부장. (정색하고 가까이 가서 붙어 앉는다. 날카롭게 주위를 다시 한 번 살핀 후)

내가 이걸 왜 너한테 줬을까? ... 내가 죽어도 너한테 죽지는 않을 거거든...

나 죽일 놈은 따로 있다. (다시 주위를 살피면)

김부장

(박부장의 너무나도 심각한 표정에 덩달아 긴장하며) ... 왜 그래? 누가 따라붙었어?

박부장
(묘하게 웃으며) 머리에 검은 갓 쓴 놈 안 보이냐?
김부장
...?

박부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좀 건자.

박부장을 따라 걷는 김부장.

박부장
너 이아고라고 들어봤어?

김부장
오셀로에 나오는 이아고?

박부장
오호~ 이 새끼.. 역시 넌 칼보다 펜이 어울려. 나중에 박통한테 쫓겨나면 신춘문에 한번
나가봐라. 여튼, 이 오셀로에 나오는 좃나 나쁜 새끼.
그 새끼 이름이 이아고인지 이아고인지..

김부장
(대뜸) 너 낫술 했냐?

박부장
(입을 벌려 냄새 맡고) 하~ 냄새나?

김부장
이 새끼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박부장
(뜸 들이다) 각하가 ‘개인비밀정보대’를 두고 있어.
그걸 이끄는 놈을 CIA가 그렇게 부른다. 이아고.

김부장
...?

박부장
너랑 나. 중앙정보부를 재끼고 위에 앉은 새끼가 따로 있단 말이야.

김부장

믿을 만한 소스를 대.

박부장

CIA 애들이 오랫동안 각하 돈줄을 쫓았다. 스위스 계좌랑 해외 자금 세탁을 중정 말고 딴 구멍으로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두 집 살림할 때 더 정 가는 쪽에 돈 퍼주는 거 알지? 각하가 우리 중정을 못 믿고 그 돈을 각하 개인비밀정보대에 맡겼던 거야.

김부장

... 그게 누군데?

박부장

(고개 절레절레)

김부장

언제부터야?

박부장

나는 그게 혁명 때부터라고 본다.

12. 과거 혁명성공파티, 육본 연회장 / 밤

연회장을 가득 채운 군인들.

박통

(축배를 들며) 혁명 동지를 위하여!

박통을 중심으로 군복 입은 쿠데타 주역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

한 명 한 명 쫓아가는 시선. 제일 설치는 박부장, 샴페인을 터뜨리며 천진난만 깔깔댄다.

뒤에 한발 물러서서 박통에게 축하 인사를 하는 김부장, 군복이 잘 어울린다.

김부장을 견제하며 박통을 밀착 경호하는 곽실장, 등등,

영화에 나오는 주요인물들이 모여 있다.

박부장

(소리) 우리 중에 있었을 거야. 각하는 오래 봐온 상대만 믿으니까... 그때는 별거 아니었겠지... 기껏해야 우리 뒷조사하고... 우리한테 시키기 쪽팔린 거 시키고... 그러다 권력은 커지고... 정적은 늘고... 돈은 쌓이고... 아무 것도 놓칠 수 없는데...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세상은 우리가 2인자인 줄 알지만... 아니었어... 2인자는 따로 있었어...

13. 링컨 메모리얼 파크 / 낮

박부장

너 3선 개헌 기억하지? 각하가 또 대통령 해먹겠다고 헌법 뜯어고쳤을 때 말이야.

김부장

...?

박부장

이제야 찜찜했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야. 개헌에 반대했던 사람들.
신영일보 박주간.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그리고 김성조 테러. 신종호 납치.
이거 나는 방첩대 애들이 해놓고 시침 떠는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김부장

내가 했잖아.

박부장

내가 안 했다고! 세상은 내가 한 줄 아는데. 씨발. 나보다 더 나쁜 짓 하는 놈이 따로 있었네.
내가 그것도 분해.. 이아고 이 개새끼..

김부장

...

박부장

피 닦고 똥 닦는 일은 이 박부장한테 다 시키고, 나를 못 믿고, 코 푼 휴지처럼 버리더니.
똥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야. 나 달고 각하 뒤에 숨어서 단물 빨아먹는 마누라 년이 따로
있었다고! 나랑 나는 그냥 머슴 짓 하는 거라고, 새끼야.

김부장

...

박부장

그러니까 우리 같이 뛰어야 돼. 이인삼각 경기 알지?
우리 발 묶여있는 거야. 서울에서 워싱턴에서.

김부장

...

박부장

김부장, 넌 미국 애들이 언제까지 박통을 봐줄 거 같냐?

김부장

...

박부장

난 1년 안에 끝난다고 본다.

김부장

... 각하도 준비하고 계신다. 차근차근 내려오실 생각이야. 내가 옆에서 도울 거고.

박부장

허허. 그 타령에 또 속냐. 임마.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없어. 그냥 떨어지는 거지!
너 이려고 있다 갑자기 미국 애들이 지들 맘에 드는 군바리 앞세워 밀어버리면 뭐 할래?
군대 다시 갈래?

김부장

...

박부장

각하가 널, 왜 중정부장에 앉힌 줄 알아?

김부장

...

박부장

규평아. 너는 아직 몰라. 다 잃어야 보이는 게 있어... (링컨기념관으로 들어서며) 여기 봐.
얼마나 멋지냐. 그리스 신전이잖아. 링컨이 여기서 신이니까. 대통령이 신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깡충깡충 사슬 끊어줘, 노예해방! 그 정도 해야 신이 되는 거야!
그래도 총 맞아 죽었는데..
(갑자기 김부장의 손을 꼭 잡고) ... 김부장.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목숨 걸고 왜 혁명을 했냐고?

김부장

...

박부장, 아쉬운 이별을 나누고 서둘러 도망치듯 떠난다.
혼자 남은 김부장, 서류가방을 들고 웅장한 링컨 조각상을 올려다본다.

14. 비행기 / 밤

일등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박부장의 원고를 읽어 내려가는 김부장.

<혁명의 배신자>

중앙정보부의 수장으로 가장 오랜 기간 남산을 지배했던 내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면...
정보부는 정치의 하녀란 것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고 조작하고
폐기한다... 오로지 그 권력을 위해... 그러나 그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나악한
것인지 알아야한다... 권력은 그들이 숨긴 정보로 인해 무너진다...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찬란한 권력의 참담한 붕괴를...

15. 청와대 / 낮

인서트) 청와대 전경.

박부장의 원고가 든 서류가방을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 김부장.
부속실에 도착하면, 직원들이 책상과 집기 등을 헤집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곽실장의 고함소리가 들려온다.
집무실로 들어서는 김부장.

곽실장

(김부장을 보자) 주권침탈의 현장! 응! 보여!

김부장

뭐?

곽실장

어떻게 미국놈들이 각하 집무실에 도청장치 해놓은 걸 이 나라 정보부장이란 자가 모를 수가
있어! 응! 통탄할 일이야! 경술국치가 따로 없어!

가구와 집기들이 다 헤집어져 있고 난리가 나 있다.
도청전문가들이 전화기도, 커튼도, 유리창도 다 뜯어서 확인하고 있다.

김부장

(전문가들을 보며 날카롭게) 어디서 불렀어?

곽실장

CIA 꺼 확인했어. 이 근방 다 뒤지고 있다.

김부장

철수시켜. 우리 애들 불러.

곽실장

이 지경 될 때까지 모르고 있던 놈들을 뭘 믿고!

김부장이 쏘아붙이려하는데.. 집무실로 들어오는 박통과 비서실장을 발견한다.
책상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박통.

박통

오만방자한 새끼들! 대한민국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대통령 책상에다 도청장치를 달아!
맨날 민주주의 타령하면서 남의 나라. 그것도 우방국 대통령 집무실에!
정보부장은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야!

김부장

...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곽실장

각하. 당장 특사를 보내셔서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이거이거 유엔에 보내야할 사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눈치만 살핀다)

박통

(김부장을 노려보며 소리친다) 미대사 당장 데려 와! 저 태극기 앞에 무릎 꿇게 해!
이거는 대한민국 자존심 문제야! 당장 끌고 와!

김부장

...

밖으로 나가는 박통. 뒤따르는 비서실장과 곽실장.
홀로 남은 김부장. 서류가방을 든 손에 힘을 짝 준다.

16. 주한미국대사관저 / 밤

인서트) 미대사관저의 철문이 열리며 김부장의 차가 통과한다.

심히 곤란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앉아있는 주한미국대사.

김부장

(영) 한국지부장은 때마침 본국으로 출장 가고 CIA가 무슨 헐리우드 삼류 탐정사무소야!
어떻게 동맹국 대통령 집무실에. 이거 내 책상에도 설치한 거 아니야!

주한미국대사

(영) 내 책상에도 한 것 같아. 나도 몰랐어. 진짜로.

김부장

(영) (담배에 불붙이며) 각하가 요즘 미국이라면 자다가도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일어나는 거 알지?

주한미국대사

(영) 박대통령은 역시 강한 자에 강해. 약한 자한테는 더 강하고.

김부장

(영) (담배 뿜뿜 태우며) 각하께서 그냥 안 넘어가실 거야.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엔에 알릴 예정이라고.

주한미국대사

(영) 그럼 미국도 가만 안 있지. 박대통령 스위스 계좌 다 까발려 볼까? 유엔에서?

김부장

(영) 로버트. (약간 누그러져 간곡하게) 내가 미국과 청와대 중간에서 잘 중재해줘야 한다니까.
한국 상황이 원체 특이하잖아. 인권 문제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내가 남산 간 이후에 싹
뜯어고쳤어. 개선의 의지가 확고한데 너무 보채지만 말고.
원래 애들도 문제야 취급하면 더 뺄어져요.

주한미국대사

(영) 박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18년이야. 18년.

김부장

...

주한미국대사

(영) 그럼. 아이가 아니잖아. 내일 모레면 어른인데. 너무 방향이 긴데.

김부장

(영) 달라질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웬지 불안한 김부장.

17.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밤

곽실장

로버트 대사가 미국 쪽에 김부장 칭찬을 그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박통
뭐라는데?

곽실장
(눈치를 살피다가) 그제.. 김부장이 아니었으면 유신은 끝났다. 각하 다음에는 김부장이다.
김부장은 영어도 잘한다. 그래서 말이 통한다.

박통
(담배를 태우며) ... 곽실장.

곽실장
예. 각하.

박통
나 다음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곽실장
... 각하 다음은 없습니다.

박통
(미소) ... 나는 말이야.. 나 다음이 있다면.. 그게 김부장이라고 생각해.

곽실장
(놀라) 예? 김부장이요?

박통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

곽실장
...?

초조한 듯 줄담배를 입에 무는 박통.

18. 용산 미8군 / 낮

미군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김부장의 차.
검문대에서 운전기사가 영어로 설명한다. “KCIA 국장님이 정기검진 오셨습니다.”

19. 내과 / 낮

김부장, 침대에 누워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다.

닥터

(영) 지방간입니다. 술 담배 끊으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는 김부장.

닥터가 나가고 한국계 CIA 요원이자 김부장의 정보원 잭 윤이 들어온다.

잭 윤

검사는 잘 받으셨어요?

김부장

어.

서류봉투를 건네는 잭 윤. 서류봉투를 받고 돈 봉투를 건네는 김부장.

김부장

동생이 하버드 갔다고? 축하해.

잭 윤

감사합니다.

책상으로 다가와 담배를 물고, 서류봉투에서 자료들을 꺼내보는 김부장.

잭 윤

박대통령이 젊은 군장성들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두혁 신임 보안사령관 어때요?

전두혁 신임 보안사령관과 그의 군대내 사조직에 대한 사진과 자료들.

김부장

똑똑한 친구지.

잭 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쿠데타로 밀려나는 게 정석이죠. 박대통령도 그걸 경계하고 있으니
군부 내에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고요.

김부장

(언짢다) 금방 뭐 일어날 것 같지만 또 뭐 안 일어나는 나라가 여기 대한민국이야.

잭 윤

지금 이 정권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와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군장성들 사진을 보며) 이 정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면 어디로 갈지도 보이니까.

김부장, 전두혁 보안사령관의 군사조직 사진을 본다.

김부장

각하가 따로 굴리고 있다는 개인정보대. 알고 있었어?

잭 윤

그거야 뭐. 독재자들이 비상구를 하나 더 열어두는 거죠.

김부장

알았어?

잭 윤

비자금 관리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장

나도 처음엔 그 정도려니 생각했는데. 각하가 청와대 도청장치를 어떻게 알아냈을 것 같아?
나 없이? 곽실장 그 바보가 알아냈겠어?

생각에 잠기는 김부장.

요정에서 함께 나오는 전두혁 보안사령관과 곽실장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주시한다.

20. 궁정동 안가 / 밤

철문이 열리며 어둠 속에 숨은 안가로 들어가는 박통의 차.

안가를 향해 걸어가는 김부장과 의전과장.

김부장

혼자 오셨다고?

의전과장

예. 저희도 막판에 연락받았습니다.

21. 안가 2층 연회실 / 밤

긴 테이블에 박통,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옆에 박부장의 회고록 원고가 놓여 있다.
김부장, 맞은편에 앉는다.

박통
읽어 봤어?

김부장
... 네.

박통
제목이... 혁명의 배신자야...
내가 혁명을 배신했다는구만... 박부장이 이렇게 문학 소년인줄 몰랐네... (원고를 읽으며)
혁명이라는 전장의 한 가운데서... 과연 박대통령은 선두에 선 깃발과 같이 용맹스러이 우리를
이끌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끝이 나아한다. 그 현실을 모르는 이는 박대통령
하나뿐이다. 그는 아직도 홀로 전장에 남아있다. 낡고 찢긴 피 묻은 깃발이 되어 살기 어린
바람에 몸을 날리고 있는 그는 패전의 증거이다. 가엾다...

원고를 내려놓고 술을 마시는 박통.

박통
내 살점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이빨들이 득시글득시글해.
그 놈들 고기는 남겨둬야지. 나 죽기만 기다리는 놈들 섭섭하지 않게. (공포심에 부르르 떠는)

김부장, 불쑥 공포를 드러내는 박통에게서 언뜻 박부장과 비슷한 모습을 본다.
김부장, 박통의 잔에 술을 따르며 슬쩍 떠본다.

김부장
지금 정신 차리고 뺏속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지금 외국에 있는 게 더 낫습니다.
먹살 끌고 여기 데리고 와봤자... 혹 여기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박부장 워낙 숙적이 많지 않습니까? (더 떠보기 위해 박통을 뺏히 본다)

박통
왜? 무슨 일 있어?

김부장
(웃으며 던져 보는) 박부장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피 냄새를 잘 맡는데.
요즘 부쩍 피 냄새가 따라다닌다고.

박통

(전혀 모르겠다는 듯) 그 자식 술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냐. 거기 양주 싸다고.
하긴 박부장이... 많이 말았지.. 냄새란 게 원래 잊혀지지가 않아...
근데 그 피 냄새라는 게 내 피가 아니거든. 내 피 냄새 맡으면 그땐 죽는 거고. (웃음)
(씹쓸하게) 내가 그 인간을 불쌍하게 여겨야겠지?

한숨을 쉬는 박통의 눈빛에는 진심 박부장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박통의 그런 모습에 혼란스러운 김부장.

박통
좀 쉬면서 기다리면 될 걸 내 말을 안 믿고. 박부장이 그런 게 좀 있었어.
가끔 나를 볼 때 시장바구니 들고 카바레 가는 여편네 보듯이 보는데.. (웃으면)

김부장
박부장이 외로운 거 못 참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박통
떠난 사람은 떠난 거고. 내가 이제 믿을 사람이 임차밖에 더 있어.
왜 그래 요즘?

김부장
...?

박통
데모하는 학생들 처벌하지 말라고 했다면?

김부장
... 나라를 걱정해서 데모도 못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국가가 위급하면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박통
...

김부장의 직언에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끄고 줄담배를 입에 무는 박통.
팽팽하게 맞서는 그들.. 긴장감이 가득한데,

박통
그래, 김부장 말이 맞아.

김부장
...

박통

그건 그렇고. 박부장은 어떻게 할 거야?

김부장

딴 짓 못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박통

박부장 별명이 남산 멧돼지야. 통제가 되겠어?

김부장

통제하겠습니다.

박통

... 임자가 알아서 해.

김부장

... 각하. 박부장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박통

무슨 얘기?

김부장

(넌지시 떠본다) 각하께서 개인정보대를 따로 두셨다고.

박통

내가?

김부장

미국 쪽에서 들었는데. 각하의 비자금을 관리 한다고.

박통

내 돈을?

김부장

예.

박통

... 김부장은 어떻게 생각해?

김부장

...

박통
내 개인정보대는 말이야.. 중앙정보부야.
김부장
...

박통
내가 중징이고. 중징이 나야.

22. 달리는 차 안 / 밤

뒷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김부장.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광실장이 청와대 불렀던 애들 알아냈습니다.

김부장
(시선을 돌리면)

강창수 수행비서
보안사 도청팀을 불렀는데. 특이하게 대학 강의 나가는 교수가 왔었던데요.

김부장
교수가?

강창수 수행비서
미국 유학파고. 보안사 도청팀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김부장
... 그 친구 좀 알아 봐.

강창수 수행비서
예.

다시 생각에 잠기는 김부장.
고요한 청와대 인근 주택가에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둠 속을 뚫고 모습을 드러내는 탱크가 주택가를 돌고 있는 기괴한 장면이 펼쳐진다.
김부장의 차가 탱크 앞에 멈춘다.

강창수 수행비서
광실장이 각하를 지킨다고 또 탱크를 돌린 모양입니다.

화가 나서 차 안에서 나오는 김부장, 탱크에 대고 샷대질 한다.

김부장

이거 하지 말랬지! 팍실장 이 개새끼!

23.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 / 낮

‘각하를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벽에 걸린 표어.

전두혁 보안사령관에게 금일봉과 지휘봉을 선물하는 팍실장.

전두혁 보안사령관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팍실장

전장군 혹시 김부장이랑 안 좋은 일 있어?

전두혁 보안사령관

예?

팍실장

내가 각하한테 전장군을 보안사령관으로 추천했는데, 김부장이 엄청 반대하던데.

전두혁 보안사령관

그랬습니까?

팍실장

뭐 내가 꺾어버렸지만, 앞으로 김부장 조심하라고.

그 인간이 전장군 뒤를 켤다는 얘기가 있어.

전두혁 보안사령관

... 예. 알겠습니다.

24. 청와대 계단 / 낮

비서실장

(계단을 오르며) 아니, 이 청와대가 터가 안 좋나.

왜 경호실장들은 다 저 모양이야. 탱크는 왜 도는 건데? 그런다고 각하 권위가 올라가?

효자동 노인정 노인네들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대. 김일성 내려온 줄 알고.

김부장
(무거운 한숨)

비서실장
곽실장이 어제 또 국회 엘리베이터에서 의원들 쪼인트 갇어.
김부장이 좀 어떻게 해 봐.

김부장
...

비서실장
각하께서 요즘 곽실장만 너무 챙긴다고 소문이 안 좋아.

김부장
(자존심 팍 상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챙겨야죠 저 모양인데.

25. 청와대 경호실장 집무실 / 낮

비서
(문 열고 들어와) 중경부장님 오셨습니다.

곽실장
김부장이? 없다고 해.

별걱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부장 전두혁 보안사령관과 눈이 마주친다.
김부장을 보고 인사를 하는 전두혁 보안사령관.
곽실장의 눈짓을 받고 조용히 나간다.

곽실장
(윗옷을 벗으며 자리에 앉는다) 아, 김부장님. 안 그래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김부장
곽실장님. 어제 국회 가서 병정놀이 하셨다고.

곽실장, 솔더홀스터에서 총을 꺼내 댑는다.

곽실장
단식투쟁 한 대서 밥 사주러 갔습니다. 야당 이것들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냐.
이런 건 김부장이 챙겨야 하는데. 박부장 그 돈까스가 요런 건 잘했는데.

김부장
중정은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곽실장
그럼 중정이 하는 일이 뭔데! CIA가 청와대 도청 단 것도 몰랐으면서!
(총 닦으며 은근슬쩍 김부장에게 향하는)

김부장
(총구를 보며 더 다가가는) 사람은 인격이 있고. 국가는 국격이란 게 있어.
여기 청와대야. 인격과 국격이 어우러지는 곳이야.
탱크. 한 번만 더 돌리면 탱크로 경호실부터 몽개버릴 줄 알아.

곽실장

...

김부장
미친년처럼 날뛰지 말고 각하 경호나 잘해.

곽실장

... 김부장. (자리에서 일어나 총을 겨누고)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김부장이야말로 자기 할 일을 정확히 몰라.
그 집 대문 앞에 써있잖아. 음지에서 지랄하고 양지를 뭐 어쩐다. 그냥 자기 자신을 버섯
이끼 뭐 그런 거라 생각하고 축축하고 껌껌한 데에서 묵묵히 일해. 묵묵히. (총구로 어깨
찌르면)

뚜껑 열린 김부장. 순식간에 슬더홀스트에서 총을 꺼내 곽실장의 가슴팍에 들이댄다.

김부장

(눈 뒤집어져서) 야 이 벌레 새끼야. 너 왜 여기에서 사람 흉내 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자리가 아냐.

곽실장

(기다렸다는 듯 간족거리며) 요걸 요걸 각하랑 귀빈 여러분이 봐야하는데. 중정부장들이
요렇게 흥분을 잘해요. 아주 그냥 숨넘어가네. 지금 죽으면 복상으로 뒤진 줄 알겠어.
나랑 있다가. 아우 부끄러워.

김부장, 분을 못 참고 총머리로 곽실장의 머리를 까며 눌러왔던 본색을 드러낸다.

김부장

이 개씹새끼! 오늘 청와대 뒷마당에 묻어줄 테니 흠뻑이나 씹어, 이 미친 개새끼야!

김부장이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곽실장도 머리를 감싸 쥐며 덤비는데.

곽실장

호요호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내가 개씹새끼면 너 개씹씹씹새끼야. 이 새끼야!

문밖에서 듣고 있던 경호실 요원들과 중정 요원들이 뛰어 들어온다.

‘부장님!’ ‘실장님! 안 됩니다!’

각자의 보스들을 말리는 중정팀과 경호실팀.

곽실장

저 새끼 군법재판에 넘겨! 감히 청와대에서 경호실장한테 총부리를 들이대!

저 새끼 총살감이야!

강창수 수행비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김부장의 총을 챙긴다.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부장,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다.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고 밖으로 나간다.

곽실장은 안에서 계속 꺽꺽거리며 김부장을 약 올린다.

곽실장

야! 우리도 남산 쳐들어가자! 남산 돈까스 함 맛 좀 보자! 케케!

26. 중앙정보부 부장실 / 낮

김부장, 벌컥 물을 마신다.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학교수말인데요. (서류 보여준다) 이 친구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김부장

(워싱턴이란 말에 촉이 선다)

강창수 수행비서

워싱턴에서 박부장님을 도청했답니다.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지금 밑에 와있습니다.

27. 취조실 복도 / 취조실 / 낮

복도를 걸어가는 김부장과 강창수 수행비서.
취조실로 들어가면, 빨테 안경 쓴 엘리트 스타일의 임교수가 눈이 벌건 채 떨고 있다.
임교수 집에서 압수한 도청장비들과 미국 체류 시 서류 등을 살피는 김부장.

김부장
(서류를 보며) 좋은 데에서 공부하셨네요. 임교수님.

임교수
아직 보따리장수입니다...

김부장
워싱턴에서 박용각 전 중정부장을 도청하셨다고?

임교수
(곤혹해하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두려움에 떠는 임교수,

김부장
여기 중정이야.

임교수
(눈치를 살피면)

김부장
자, 죽었다 치고 다 말해 봐. 뭐 재밌는 거 아는 거 같은데.

임교수
거기서도 중앙정보부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부장
...?

임교수
명함이 무역회사 건데. 제임스 류라고.

의심스러워서 알아보니 대사관 들락거리고 중정 사람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김부장, 강창수 수행비서와 눈을 마주치며 놀라움을 나눈다.

김부장

제임스 류라는 중정 사람이 박부장 도청을 의뢰했다고?

임교수

예. 귀국하고 연락이 와서 보안사 도청팀으로 간 겁니다.
전 학교에 남고 싶습니다. 이런 일에 자꾸 엮이면.

김부장

누가 연락을 했는데?

임교수

이번엔 신차장이라고.. 김부장님 도청을 의뢰했습니다...

김부장

(놀라는) 나? 나를?

임교수

(살려달란 눈빛으로 끄덕끄덕)

김부장

어떤 둘은 새끼가 중정 부장 집에 도청달래?

임교수

김부장님은 집에 안 들어가신다고... 애인 집이다.

김부장

누가 지시했어?

임교수

신차장이 일본말투가 섞여있습니다...

김부장

그 신차장이란 놈 위에 누가 있냐고!

임교수

... 전 신차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각하를 위한 일이라고 해서..

김부장

...

28.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낮

박통

박부장은 뭐래?

곽실장

이백만불 주면 원본 넘기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박통

그 새끼가 나 몰래 가져간 돈이 얼마데! 나보고 또 돈을 내놓으래?

곽실장

각하 죽여버릴까요?

박통

... 그날 박부장이 방송국에 가서 제일 먼저 혁당 방송을 했어. 우리 혁명은 그때 성공한 거야. 박부장이 그런 건 참 빨랐지. 선점. 선전. 본능적이야. 장사를 해도 잘했을 거야.
(웃으며) 하긴 이 놈이 장사는 잘하지..

29. 중앙정보부 취조실 / 밤

강창수 수행비서

(서류를 건네며) 임교수 미국에서 스카우트 한 놈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유동훈이라고 워싱턴 대사관 있던 자식입니다. 사진으로 얼굴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파리 대사관에 있습니다.

김부장

... 중정 요원이 내 지시 없이 움직였어. 누구라고 생각해?

강창수 수행비서

유동훈이 공수부대 있었을 때 곽실장 부관이었습니다.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유동훈을 중정에 추천한 것도 꺾실장이고요.

김부장

... 워싱턴에 함대용 파리로 보내. 함대용한테 당장 그 새끼 동태 파악 하라고 해.

강창수 수행비서

예. 알겠습니다.

김부장

... 강대령. 임교수 좀 알뜰하게 써먹자.

강창수 수행비서

...?

30. 명동 거리 / 밤

명동의 밤거리. 멈춰서는 차에서 내리는 김부장.

31. 장마담의 모던바 / 밤

김부장의 애인 장마담이 운영하는 명동의 모던바.

장마담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는 김부장.

안락의자에 앉아 전화로 보고를 받는 김부장.

턴테이블을 돌리고 칵테일을 건네는 장마담이 조용히 밖으로 나가면,

강창수 수행비서

(소리) 꺾실장이 이천 지역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를 불러 조인트 째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김영삼 총재 보좌관 출신이라 펄펄 뛰었다는데요.

김부장

하. 꺾 그 새끼. 뉴욕타임스 기자가 지금 플라자 호텔에 묵고 있다니까 김총재 인터뷰 안 하나 감시 잘해.

인서트) 전화 단자함을 통해 도청을 하는 임교수.

32. 명동 빌딩 앞 / 낮

명동 빌딩으로 들어가는 임교수.

그리고 한쪽 거리에 주차된 차 안에서 감시하는 중정 요원.

33. 명동 빌딩 복도 / 사무실 / 낮

복도를 걸어가는 임교수. ‘현해탄 상사’ 작은 입간판이 달린 사무실로 들어간다.

여직원이 책상 하나 차지하고 지키고 있다.

안쪽 물품실로 들어가면, 임교수의 도청 작업대가 나온다.

김부장을 도청한 녹음테이프를 금고 안에 넣고 퇴근하는 임교수.

뒤에서 여직원이 임교수가 띠짖 안 하나 지켜보고 있다.

시간 경과. 대부분 사무실들이 퇴근한 조용한 복도.

복도로 들어서는 신차장, ‘현해탄 상사’로 들어간다.

금고에서 녹취 테이프를 꺼내 서류봉투에 넣는 신차장.

34. 명동 빌딩 앞 / 밤

서류봉투를 옆구리에 낀 신차장이 나온다.

건물 밖에 세워 둔 차 안에서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 중정 요원.

택시를 타고 떠나는 신차장의 뒤를 쫓는다.

35. 낙원상가 / 밤

택시에서 내리는 신차장. 한쪽 뒤에 멈춰서는 차에서 내리는 중정 요원.

신차장을 쫓아 상가 외부 계단을 오른다.

신차장을 쫓아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펙! 맞고 떨어지는 중정 요원.

36. 서울 모처 차 안 / 밤

어둠 속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

잠시 후 신차장이 다가와 차창을 두드린다. 남자에게 서류봉투를 건넨다.

서류봉투를 받고 다른 서류봉투를 내미는 남자.

신차장, 받은 서류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다.

‘혁명의 배신자’ 박부장의 원고다.

37. 청와대 / 낮

/전두혁 보안사령관, 서류가방을 들고 급하게 복도를 걸어간다.

/대통령 집무실.

곽실장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통

뭐했는데?

곽실장

미국이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 각하를 제어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통

뭐?

곽실장

내일 자 뉴욕타임스 1면에 실린 예정입니다.

김부장 앞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는 곽실장.

박통

(김부장에게) 알고 있었어?

김부장

예.

박통

(담배를 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곽실장

반민족적 적대행위로 봐야 합니다. 각하. 김영삼을 즉각적으로 제명해야 합니다.

김부장

인터뷰 좀 했다고 야당 총재를 제명한다면,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곽실장

김부장은 한국 정보부장이요? 미국 정보부장이요?

김부장

...?

곽실장

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CIA 가.

김부장

(저 새끼가) ... 각하. 김영삼 총재를 제명하면, 국민들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박통

가만 안 있으면?

김부장

...

비서관

(문 열고 들어와) 보안사령관이 급하게 각하를 뵈고자 합니다.

박통

...?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전두혁 보안사령관이 들어와 깁뚝하게 인사를 한다.
박통 옆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뭔가를 전한다.
박통의 얼굴이 갑자기 굳는다.
서류가방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박통에게 건네는 전두혁 보안사령관.
김부장과 곽실장의 시선이 쏠리던.
서류봉투에서 꺼낸 잡지를 보고 있는 박통. 잡지를 쥔 손이 부르르 떨린다.
화를 참지 못하고 김부장을 향해 잡지를 내던지는 박통.
김부장의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잡지.
정적. 무거운 침묵. 희미하게 미소를 흘리는 곽실장.
모멸감에 고개를 못 드는 김부장.
박통,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곽실장과 전두혁 보안사령관도 따라 나간다.
홀로 남은 김부장.. 잡지를 집어보면,
일본 시사주간지 커버를 장식하고 있는 박부장의 얼굴. 그리고 타이틀.

‘전 한국 중앙정보부장 박용각 회고록 - 혁명의 배신자’ 일부 게재!

38. 워싱턴 데보라 심의 집 앞 / 낮

경호원들과 함께 차 안에 앉아 있는 박부장.
초조한 얼굴로 데보라 심의 집을 주시하면, 도착하는 차에서 내리는 데보라 심.

차 문을 열고 황급히 밖으로 나가는 박부장.

39. 데보라 심의 집 / 낮

박부장, 데보라 심에게 불안과 분노를 토로한다.

박부장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내 무덤을 파서 들어가냐고!

데보라 심

그놈의 그거 땅에 묻든가 불에 태우든가 했어야지 뭐 재밌는 거라고.

박부장

다 없었어! 서기자도 안 갖고 있어. 그거 가지고 있는 건 FBI랑. 김부장이 가져간 거. 응?
설마 김부장. 이 새끼가 나 엇 먹이려고?

데보라 심

김부장이 왜 토라이짓을 할까요. 김부장이 청와대 갔을 거 아냐. 그럼. 뭐야. 혹시?

박부장 머리가 복잡하다.

데보라 심

그러게 비밀이 판돈인 사람이 한 판에 다 풀면 어떡하냐고.

박부장

비밀이랄 게 있나 거기 씨발! 나도 나쁜 새끼 그 새끼도 나쁜 새끼 다 나쁜 새끼!

그 책 백날 읽어봤자 독후감은 딱 그거예요. 다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바둑이도 같이 죽자 동네 한 바퀴!

아아... 데보라... (얼굴을 감싸며 눈물 그렁그렁)

나 이 타향살이 언제 끝낼 수 있을 것 같냐. 저 놈들 세상 언제까지 갈 것 같아?

데보라 심

세상이 바뀌나. 얼굴만 바뀌지

박부장

그러니까 그 얼굴이 말이야... 만약 박통이 당장 나가리 되면 미국 애들은 누굴 밀 것 같냐?

또 군바리를 봐주지는 않을 거 아냐? 그래도 김부장이랑 관계가 제일 좋잖아.

데보라 심

경호실장이란 놈은 미친놈이고. 그래도 김부장이 말상대가 되지. 지금 대사하고도 친하고.

박부장

... 규평이가 할 수 있을까? 어때?

데보라 심

뭘? (박부장 다 알지 않느냐는 듯이 뜨겁게 바라보면) 왜 눈이 또 반짝반짝.

(박부장이 계속 뜨겁게 보자 생각도 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박부장

왜? 내가 헛꿈 꾸는 거 같아? 규평이도 오래 못 버텨. 그 자식도 정신 차려야해.
각하는 2인자는 안 살려놔. 태양은 하나니까! 씨발. 내가 언제 태양 되겠다고 했는 줄 알아!
난 달이야 달! 달이 돼서 태양 뒤편에서 은은하게 자족하며 살겠다고 했는데도 이 꼴을
당했어. 씨발! (울분) 내가! 내가! 왜! 내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건데!

데보라 심

김부장은 선비잖아.

박부장

규평이 그 자식이 꼭지 돌면 어마어마해!! 나는 갓난 애기야!
군바리들 조질 놔둔 규평이 하나야!

데보라 심

쫓 서울 또 시끄럽겠네.

박부장

우리 한번 해 보자. 응?

데보라 심

우리라니?

박부장

심여사도 살아나고 있잖아. 요즘 존슨 하원의장이랑 그렇고 그렇다며?

데보라 심

웃겨. 정말.

박부장

개.국.공.신. 왜 여자는 개국공신 없는 건데. 심여사가 가서 깃발 꽂는 거야. 크아~ 멋지다.

심여사랑 나랑 우리가 여기서 지원 팍팍 해주면 규평이가 못할 게 뭐야? 응?

서울에 존슨이랑 같이 가지? 하아~ 심여사가 나한테는 천군만마다.

(데보라 심을 와락 안으며 은근슬쩍 더듬더듬)

데보라 심
미국은 집집마다 총 있다.

딱 손 내리는 박부장. 갑자기 신이 나서 술병을 찾는다.

박부장
카. 이거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
데보라 심, 미래를 꿈꾸는 박부장을 걱정스레 바라본다.

40. 과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낮

박부장에게 술을 따라주는 박통.

박통
김성조가 3선 개헌을 반대한다고?

박부장
예. 이미 상당수의 의원들이 김의원한테 붙었습니다.
김의원의 재력이 워낙 막강하니까요.

박통
돈버려지 같은 새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박부장
각하 명대로 하겠습니다.

박통
...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41. 과거 중앙정보부 고문실 / 밤

/박부장, 복도에 울리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뚫고 걸어간다.

/물고문을 당하는 김의원. 문을 열고 들어와 지켜보는 박부장.
김의원을 자리에 앉히는 요원들.

김의원
잘 한다.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박부장

세상이 좋아졌어. 옛날엔 역심을 품으면 그냥 삼족을 멸했어. 이 양반아.

김의원

조선 시대야! 왕을 모시고 살아 우리가!

네가 날 이려고도 살아남을 것 같아!

박부장

...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부장, 김의원을 후려친다.

바닥으로 넘어진 김의원을 광포하게 짓밟는다.

박부장

왜? 돈지랄 해보게? 야. 그 돈이란 게 세는 맛이 없으면 뭘 맛이나.

김의원의 손을 잔인하게 짓밟는 박부장의 모습에서.

42. 과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낮

박부장, 기분 좋은 얼굴로 집무실로 들어간다. 담배 연기로 자욱한 집무실.

박통, 심상치 않은 얼굴로 줄담배를 태운다.

박통

이번 3선 개헌. 수고했어.

박부장

각하. 감사합니다.

박통

좀 쉬지 그래. 박부장.

박통의 싸늘한 표정에 얼떨떨한 박부장.

박통

여론이 안 좋아.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난리야. 좀 살살 했어야지.

박부장

각하. 그건..

박통
(벼락같은 울분과 호통) 왜! 왜! 왜 나를 또 나쁜 놈 만드냐고!

박부장

...

박통
그렇게 사람들을 쥐어 패고 무사할 줄 알았어?

박부장
각하. 전 각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통
박부장. 땅 샀어?

박부장
예에?

박통
땅덩어리도 작은 나라에서 땅 사고 파는다고? (당황하는 박부장을 보고)
돈 보따리 내놓고 퇴근해. 출근하랄 때까지 집에 있어.

박부장
(박통의 말뜻을 알아듣고 전식을 하며) 각하. 저 박용각이 돈 문제만은 깨끗합니다.

박부장, 그제야 사태파악을 하고 무릎을 꿇는다.

박부장
제 명예를 걸고 할복을 하라면 하겠지만 저는 결코 사리사욕을

박통
(다 알아봤다는 듯 살벌하게 찌려보며 일어난다) 다 토해 내.
그거 입에 물고 있다 뱉이지 말고.

박통, 열 받아서 나가고.
한참 주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개처럼 무릎 꿇고 앉아있는 박부장의 뒷모습.

43. 워싱턴 데보라 심의 집 / 해질녘

창가로 들어오는 오후의 마지막 햇살.

이미 취한 박부장, 위스키가 담긴 술잔을 쓰다듬으며 씩씩한 회상에 잠겨있다.

데보라 심

하. 진짜 웃겨. 살라자르가 말이야. 왜 포르투갈에서 36년 해쳐먹었던.

박부장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랬지.

데보라 심

그 인간도 나 아니면 이 나라 망한다고 36년을 총리 했는데. 마지막이 진짜 허무했지. 테라스에서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됐잖아. 어떡해. 총리 자리를 비워둘 수 없잖아. 재밌어진 게. 죽을 줄 알았던 살라자르가 깨어난 거야. 더 웃긴 건 이 인간이 반신불수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자기가 계속 총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라. 다행히 포르투갈에 사육신 같은 충신들이 있었네. 살라자르가 충격을 받을까봐. 병실에 집무실 차려주고 아무 일 없이 총리 노릇을 계속 하는 것처럼 해줬대. 매일 가짜 신문을 만들어 읽어주고, 가짜 보고서 올리고. 살라자르는 계속 침대에 누워 그 가짜 서류에 서명하고.. 그 인간 죽을 때까지 자기가 1인자인줄 알고 죽었다잖아. 것도 복이야. 그치?

박부장

나도 그랬을걸.. 각하가 쓰러지시면.. 매일 가짜 신문 읽어드리고.. 가짜 보고서 드리고.. 탄 놈들은 못해도 난 그 일을 했을 거야.. 각하.. 오늘 북악산 바위가 반짝반짝합니다.. 각하. 북한 김일성이가 저 생일이라고 대포를 쏩니다. 떡이라도 돌릴까요.. 내가 그랬을 건데.. 그런 나를 왜...

박부장, 눈에 그렁그렁 서러운 눈물을 단 채 술을 들이켈다.

44. 중앙정보부 부장실 / 낮

책상 위에 펼쳐진 신차장의 프로필과 사진.

강창수 수행비서

조총련 민단 다 확인했습니다. 출판사는 잡아떼지만 원고 넘긴 게 임교수가 말한 신차장이 맞습니다. 본명 신익치. 조총련 쪽에서는 나름 유명한 인물이라서요. 북한 들락날락거리다 우리 쪽 붙어서 부자 됐다고.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이게 정식 통로로 출판된 게 아닌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박부장님이 직접 일본 출판사에 연락해서 난리를 쳤다고 하고요.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목소리 죽이며) 신차장 이 인간이 영부인 피살 사건 당시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있던
재일동포 청년 중 하나입니다.

김부장

(민감한 사안이라) 뭐?

강창수 수행비서
암살범과 일본에서 같이 넘어와서 호텔에 묵었다던 그 남자.

김부장

그 일은 경호실이 다 덮었을 텐데.

강창수 수행비서
일본 쪽에서도 따로 수사를 계속 했으니까요. 이 신익치가 총을 쏘 줄 압니다.

김부장

정작 범인은 총을 못 쏘지. (의혹의 눈빛) 광실장이 이 자식을 알고 있겠네.

강창수 수행비서

(끄덕끄덕)

김부장, 심각하게 신차장의 사진을 들여다본다.

45. 청와대 복도 / 낮

김부장이 서류가방을 들고 집무실을 향해 걸어간다.
때마침 집무실에서 나오는 박통과 뒤따르는 광실장과 비서실장 그리고 전두혁 보안사령관.

김부장

각하 드릴말씀이..

박통, 세상 가장 차가운 눈빛으로 김부장을 무시하고 지나간다.
광실장, 김부장 옆을 지나며 실실 쪼갬다.

곽실장
(슬쩍) 빙신...

모두들 떠나고 김부장, 그 자리에 홀로 서있다.

46. 프랑스 파리 거리 / 새벽

함대용 요원, 공중전화로 향한다.

47. 중앙정보부 부장실 / 낮

함대용 요원과 통화하는 김부장.

함대용 요원
대사님이 박부장님을 파리로 초대했습니다.

김부장
윤대사가?

함대용 요원
예. 가끔 오셔서 윤대사랑 카지노에 가긴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쿄에 있는 황인철 전 국무총리도 같이 부르셨고요.

김부장
황총리도 온다고?

함대용 요원
예. 유동훈은 모사드 출신 이스라엘 애를 만나고 있습니다.

김부장
... 유동훈이가 윤대사와 무슨 작당을 하는지 철저하게 감시해.

함대용 요원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김부장.

48. 미행 몽타주 / 해질녘

세느강을 함께 걷는 주불한국대사관 윤대사와 유동훈 요원.

한쪽 뒤에서 쫓아가는 함대용 요원.

노천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윤대사와 유동훈 요원.

한쪽에서 그들의 사진을 찍는 함대용 요원.

49. 용산 미8군 내과 / 낮

신차장의 흑백 사진 필름이 X레이 투시대 위로 펼쳐진다.

김부장

신차장. 신익치. 이 북한 들락거리던 이중첩자가 날 도청했고.

일본 출판사랑 박부장 회고록을 덜었고

그러는 동안 파리에 있는 윤대사는 박부장을 파리로 불렀고.

그 밑에 우리 직원은 모사드를 만났고.

잭 윤

그 모든 짓을 중앙정보부장 모르게 했다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요?

김부장

회고록 원고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건. 딱 세 사람이야. 각하. 나. 그리고 짹짹이.

이 문제 많은 쪽바리 빨갱이 새끼를 몇 년 전에 우리 쪽으로 포섭한 게 경호실인데.

거기에도 있었지. 짹짹이가.

모사드 만나는 우리 직원 놈은 짹짹이가 공수부대 있었을 때 부관이었고.

윤대사가 짹짹이 처가 쪽 사람이야. 다 짹짹이랑 연결 돼 있어.

설마... 이아고인지 뭔가가. 광대 새끼일까. 왕 옆에서 재롱 떠는?

하아... 그러면 우스워지는 거잖아. 이 덜떨어진 새끼가 어떻게.

잭 윤

박부장님 회고록을 풀어서 가장 이득 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부장

...

잭 윤

전 한 번도 꺾실장 멍청하다고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김부장

...

잭 윤

미국 연수 당시 육사 출신 가운데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유일한 만점자.

김부장

...

50. 파리 주불한국대사관 / 낮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가는 직원들.

혼자 남아 업무를 마저 보는 유동훈 요원. 전화 통화를 한다.

시간 경과. 밤.

유동훈 요원 책상에 붙은 도청 녹음기를 수거하는 함대용 요원.

유동훈 요원이 모사드 요원과 영어로 통화한 내용이 흘러나온다

유동훈 요원

(영) 벨기에 앤트워프항에서 이스라엘 하이파 항으로 가는 화물선은 알아봤어?

모사드 요원

(소리) (영) 블루랜드라고 적당한 배가 있어. 날짜와 시간은?

유동훈 요원

(영) 예정대로.

51. 주한미국대사관저 / 밤

존슨 하원의장과 미 의원들의 내한을 축하하는 파티.

주한미국대사가 텍시도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한다.

저쪽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면 존슨 의원과 데보라 심이 사교계의 여왕처럼 등장한다.

텍시도를 입은 김부장. 멀리서 데보라 심에게 눈짓으로 인사한다.

곽실장이 과장된 오리걸음으로 존슨 의원에게 다가가 인사한다.

그런 곽실장을 바라보는 김부장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경계심으로 가득하다.

잠시 후, 피아노 반주에 미 팝가수의 스탠더드 팝이 연주되는 가운데.

데보라 심이 웃으면서 김부장에게 다가온다.

데보라 심, 웃는 얼굴로 자연스럽게 주위를 보는데.

저쪽에서 전두혁 보안사령관이 김부장에게 인사를 한다.

곽실장은 그런 전두혁 보안사령관을 빼죽거리며 쳐다보고,

파티장에 있는 서로를 안 보는 척 의식하는 사람들.

데보라 심

역시 세계 어디를 가나 미국대사관 자리가 제일 명당이야. 어쩔 여기 공기 봐봐.
(김부장 옆에 바짝 붙어 서서) 박부장이 풍수하는 홍콩 친구한테 들었는데.
청와대 자리가 우리나라 제일 흥터래요. 거기 집주인은 제명에 그 집에서 못 나온다네.
그럴 바엔 끌어내는 게 집주인한테도 좋다는데.

김부장

...?

데보라 심

내 말이 아니라 박부장 말이. 박부장이 더는 못 기다리겠대요.

김부장

(놀라서 목소리를 죽이며) 무슨 소리야?

데보라 심

박부장이 한번 해보자네요. 주인 바뀔 때 됐다고.

김부장

(주변을 살피며) 미쳤어?

데보라 심

이 방에 그 생각 안 해본 사람 한 명도 없을 걸요.

김부장

...

김부장의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들.. 곽실장, 전두혁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등등,

데보라 심

부장님도 아시잖아요. 어차피 시간문제란 거 다 아는데.
누가 먼저 칼을 빼느냐. 누가 먼저 한강 다리를 건너느냐.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

김부장

아주 꿈을 야무지게 꾸고 있구만.

데보라 심

박부장한테는 꿈이지만 김부장님한테는 꿈이 아닐 텐데요.

데보라 심, 존슨 의원을 향해 보란 듯이 손을 흔들며 눈빛으로 하트를 날린다.

데보라 심

설마 김부장님을 혼자 사지로 보내겠어요.

(존슨이 손 흔드는 걸 보며 김부장의 팔을 번쩍 들어 함께 흔든다)

제가 아무하고나 춤 안 추는 거 알죠?

데보라 심, 눈빛으로 의지를 전하고는 존슨 의원한테로 가서 춤을 춘다.

박통을 제거하자는 급작스런 제안에 불안하고 예민한 눈빛의 김부장.

잭 윤이 다가와 술잔을 건넨다.

시간 경과. 파티장이 내려다보이는 2층 테라스에서 이야기하는 두 사람.

잭 윤

박부장님 제거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김부장

...

잭 윤

파리에서 외교차량으로 국경 넘어 벨기에까지 가는 건 쉬우니까 그길로 앤트워프 항까지
가고. 파리건 벨기에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김부장

골치 아프니까 배에서 처리한다?

잭 윤

모사드한테 도쿄행 직항 비행기를 부탁한 것으로 봐서 서울까지 데려오는 것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김부장

확실해?

잭 윤

모사드 발 정보입니다.

김부장

기어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어찌려고.. 이 새끼가 환장을 했구만..

김부장, 흥분을 가라앉히며 파티장을 내려다본다.

주한미국대사 옆에서 떠돌고 있는 광실장이 눈에 들어온다.

잭 윤
부장님, 괄실장이 혼자 움직이겠습니까?

김부장

...

잭 윤
각하가 부장님을 빼고 왜 괄실장한테 오더를 내렸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김부장
... 모사드가 최종적으로 접촉한 게 누구야? 위야?

잭 윤
(끄덕끄덕)

김부장
본부에 보고했나?

잭 윤
이건 어디까지나 부장님 정보원으로서 제 선물입니다.

잭 윤이 나가고, 혼자 남은 김부장.
불안한 얼굴로 파티장의 사람들을 주시한다.
일행 속에서 웃고 있던 데보라 심. 김부장을 지긋한 눈빛으로 본다.

52.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밤

박통이 책상에 앉아 뿌연 담배 연기 속에 서류들을 쌓아놓고 업무를 보고 있다.
부속실 비서관이 노크를 하고 들어온다.

비서관
각하. 정보부장님 오셨습니다.

박통
...

불안한 얼굴로 부속실에서 기다리는 김부장.

비서관

(나와서) 돌아가시랍니다.

김부장
...? 뭐하시는데?

비서관
일하십니다.

김부장
...

53. 파리 리츠 호텔 / 낮

호텔 앞으로 도착하는 차에서 내리는 박부장과 경호원들.
마중 나온 윤대사가 박부장과 함께 호텔로 들어간다.

54. 호텔 룸 / 낮

윤대사
(소파에 앉아) 도쿄서 일부러 너 때문에 날아온다니까.
황인철이 통해서 잘 얘기하면 그게 제일 빨라.

박부장
(술을 마시며) 내가 황인철이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윤대사
각하가 황총리한테 그랬대요. 포기했다. 더 이상 박부장이랑 싸우기 싫다.
그 놈 그냥 데려와라. 미국 갈 때 가져간 돈 내놓으면 화 풀리실 것 같단다.

박부장
(버럭) 내가 돈이 어딴어! 씨이... (슬그머니) 진짜 그랬대?

윤대사
얘기 잘 해봐. 각하가 그래도 황총리 말은 들으시니까.

박부장
... 언제 온대요?

윤대사

내일 밤에 도착한다니까. 그때까지 카드나 돌리면서 머리 좀 식히고.

박부장

내가 지금 포커 치게 생겼어! 김부장은 진짜 찢리는 거야? 확실하냐고!

윤대사

그래! 너 때문에 모가지 간당간당이다! 청와대 아침 조회에도 못 들어가고 있단다.
김규평이가! 꼭실장한테 밀려서!

낭패다 싶어 절망하는 박부장.

55. 중앙정보부 부장실 / 밤

김부장이 책상에 앉아 뿌연 담배 연기 속에 서류들을 쌓아놓고 업무를 보고 있다.
‘이아고’와 관련된 정보들을 살펴본다.
신차장의 프로필, 광실장의 프로필, 전두혁 보안사령관의 프로필, 등등,
김부장의 마음처럼 복잡하게 얹혀있다.
혁명성공파티 사진 속, 사람들을 주시하는 김부장.
박통을 중심으로 얹혀있는 사람들. 광실장의 얼굴을 주시하는 김부장.
‘이 새끼가 정말 이아고란 말인가?’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린다.

함대용 요원

(소리) 박부장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호텔에 윤대사랑 같이 있습니다.

김부장

...

함대용 요원

(소리) 어떻게 할까요?

김부장

...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함대용 요원

(소리) 부장님?

김부장

...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박통.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김부장.

김부장
각하.

박통
(속- 둘러보고) 이 밤에 일하는 사람은 나랑 임자뿐이야.

김부장
... (이아고와 관련된 서류를 슬쩍 치우면)

박통
(시바스 리갈 술병을 들어 보이며) 적적한데 한잔하지.

시간 경과.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는 그들.

박통
... 임자.

김부장
예 각하.

박통
내가 언제 끝날 거 같아?

김부장
...

박통
그렇잖아.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나 다음은 누가 좋겠어?

김부장
...

박통
임자가 해.

김부장
...

박통
(주시하면)

김부장
(침묵)

박통
왜? 싫어?

김부장
... 전 각하 옆을 지키겠습니다.

박통
(엷은 미소) ... 박부장 어떻게 할 거야?

김부장
...

말없이 서로를 주시하는 그들.

김부장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박통
... 갈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통. 따라 일어나는 김부장. 밖으로 나간다.

56. 복도 / 밤

긴 복도를 걸어나는 박통. 그리고 말없이 뒤따르는 김부장의 뒷모습.

57. 중앙정보부 앞 / 밤

차에 오르는 박통.

박통
쉬엄쉬엄해. 잠도 자고.

김부장
...

박통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우두커니 서 있는 김부장. 마음이 더욱 복잡해진다.

58. 파리 리츠 호텔 / 해질녘

파리의 아름다운 노을빛이 창가로 새어들고.
악몽을 꾸는 듯 보이는 박부장.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베게 옆에 둔 총을 움켜쥐었다.
땀을 흠뻑 흘리지만 눈빛은 사나운 박부장.
총을 쥐고 나가면, 거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호원들.
멀뚱히 박부장을 바라보면,

박부장
... 먹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서는 박부장.

박부장
짐 싸. 빙 옮겨.

경호원
예?

박부장
여기 무슨 절간이나. 왜 이렇게 조용해. 다른 룸으로 잡아. 윤대사한테는 알리지 말고.

웬지 모를 불안감에 젖어드는 박부장.

59. 파리 외곽 / 해질녘

어스름한 길가로 들어서는 차. 차고로 들어간다.

60. 차고 / 해질녘

차고의 문이 닫히면, 차에서 내리는 함대용 요원.
알제리 국적의 프랑스인 폭력배 세 명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캐비닛에서 총을 꺼내 함대용 요원에게 건넨다.
총을 받아 탄창을 확인하고 지도를 펼치는 함대용 요원.

지도를 보며 동선을 체크하는 함대용 요원과 폭력배들.

61. 중앙정보부 부장실 / 새벽

창밖에서 보이는 김부장. 잠 한숨 못 잔 얼굴로 담배를 태우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울리는 전화기를 받는다.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김부장.

김부장
... 박부장은?

함대용 요원
(소리) 카지노에 계십니다.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부장
... (갈등)

62. 파리 드골 공항 / 밤

인서트)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

데보라 심, 공항에서 나오면 함대용 요원이 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데보라 심
(가방을 건네며) 박부장은?

함대용 요원
카지노에 계십니다.

데보라 심
(싱긋 웃으며) 우리 박부장은 좋겠어. 김부장이 친구 편에 서서.

출발하는 차.

63. 달리는 차 안 / 밤

데보라 심, 화를 참으며 운전석에 함대용 요원을 째려본다.

데보라 심

이건 말이 완전 틀리잖아. 박부장 만나서 박부장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전하라며?

함대용 요원

...

데보라 심

워싱턴에서 파리까지 불러놓고. 이게 무슨 짓이야? 김부장 완전 양아치네.

함대용 요원

(서늘하게) 말 좀 가리시죠.

데보라 심

(약간 기가 죽어) ... 아니, 그럼 진작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을 하던지.
이게 무슨 경우야? 니네들 일을 이딴 식으로 하나?

함대용 요원

그럼 여사님께서 파리까지 오셨겠습니까?

데보라 심

(이 갈며)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에 발을 담가야 하는지를 모르겠네.

함대용 요원

지금 워싱턴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럼, 다시는 서울에 못가십니다.

데보라 심

너 지금 나 협박하니?

함대용 요원

여사님이 정하십시오. 둘 중 하나. 하나만 정하셔야합니다.

데보라 심

둘이 똑같구만.. 씨이... (짜려보더니 속이 타서 차창을 연다)
아.. 파리.. 파리는 가을인데... (씨발...)

64. 서울 예술극장 앞 / 낮

예술극장 앞으로 들어서는 경호차량과 박통의 차.
차에서 내리는 박통을 따라 계단을 오르는 김부장과 곽실장.

65. 예술극장 / 낮

박수소리 들리며 공연이 열리는 오페라 극장에 박통이 들어선다.

화동 소녀가 박통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준다.

박통,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며 소녀와 악수를 나눈다.

그 옆에서 분주하게 사진 촬영을 지시하는 곽실장.

김부장, 저만치 떨어져 서서 박통과 곽실장이 나누는 눈짓 하나하나까지 관찰하고 있다.

초조한 낮빛을 감추지 못하는 김부장.

강창수 수행비서가 김부장 뒤로 다가와 시간을 체크하라는 신호를 준다.

김부장,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66. 파리 호텔 카지노 / 밤

불안과 울분을 게임으로 날리는 박부장. 돈을 마구 뿌린다.

그러면서도 날카롭게 사방을 주시하는 박부장. 위스키를 벌컥 마신다.

밖에서 지키고 있는 박부장의 경호원 둘.

입구로 들어서는 윤대사가 박부장에게 다가온다.

박부장
황총리는?

윤대사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좀 딜레이가 됐대.
도착하면 여기서 보기로 했으니까, 패나 보자구.

박부장
여기서?

윤대사
요 위에. 407호.

67. 호텔 뒷길 / 밤

도착하는 택시에서 내리는 신차장.

기다리고 있는 유동훈과 접선한다. 서류가방과 키를 받는다. 407호.

유동훈 요원
윤대사가 박부장을 데리고 407호로 갈 겁니다.

68. 파리 부티크 / 밤

데보라 심,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고 있다. 아름답다.

데보라 심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지겹다. 끝내자. 하나는 남겠지.

부티크 응접실에 앉아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함대용 요원.

데보라 심

(신경질적으로) 뭐야? 아직이야?

69. 서울 예술극장 공연장 / 복도 / 낮

옆에 착 달라붙어 박통의 시중을 드는 곽실장.

그들과 떨어져 한쪽 옆에 앉아있는 김부장.

곶속말을 하며 미소를 머금은 박통과 곽실장.

김부장이 초조하게 손목의 염주를 만지작거리면,

곽실장이 손목시계를 보더니 슬그머니 나간다.

김부장이 그런 곽실장을 주시하면, 강창수 수행비서가 다가와 곶속말을 전한다.

복도로 나오는 김부장과 강창수 수행비서.

강창수 수행비서

황총리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김부장

뭐?

강창수 수행비서

황총리는 그냥 미깠 거 같습니다. 박부장님을 유인하기 위한.

김부장

... (초조한 듯 담배를 찾는다)

담배를 건네는 강창수 수행비서.

김부장

(연기를 내뿜으면)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곽실장보다 먼저 치려면 지금 결정하셔야합니다.

김부장

...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담배연기만 내뿜으면)

문을 열고 극장에서 나오는 박통. 황급히 담배를 끄는 김부장.

박통

전우초 한 대 피자구.

박통에게 다가가는 김부장, 담배를 건네고 불을 붙인다.

박통

(담배를 태우며) 곽실장은 어디 갔나? 안보이네.

김부장

...

박통

(김부장을 숙- 보고)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김부장

... (불안한 마음을 숨기고) 아닙니다.

박통

후~ (연기를 내뿜고) 김부장은 다 좋은데 말이야. 너무 생각이 많아.

김부장

...?

박통

(알 듯 모를 듯)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김부장

...

70. 파리 호텔 카지노 / 밤

술잔을 비우며 게임에 열중하는 박부장.

윤대사

(시간을 확인하고) 프런트가서 확인 좀 하고 올게. 황총리 체크인 했는지.

박부장

형님!

윤대사

...?

박부장

칩 좀 가져오쇼. 올인 이야.

71. 호텔 복도 / 밤

복도를 걸어가는 신차장, 407호로 들어간다.

72. 호텔 뒤편 주차장 / 밤

호텔 뒷문으로 나오는 윤대사, 어둠 속으로 걸어가 유동훈 요원과 만난다.

유동훈 요원

박부장 데리고 407호로 가시면 됩니다.

윤대사

경호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유동훈 요원

그건 제가 알아서하겠습니다.

73. 호텔 407호 / 밤

신차장, 서류가방에서 총을 꺼내 소음기를 장착한다.

74. 호텔 카지노 / 밤

밖에서 지키고 있는 박부장의 경호원 둘.

카지노 사복경찰, 무전을 받는다. ‘일본 야쿠자가 무기 소지하고 있다.’

카지노 사복경찰, 박부장의 경호원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저쪽으로 가자고한다.

크게 돈을 따는 박부장, 호탕하게 웃으며 위스키를 벌컥 마신다.

데보라 심

(옆으로 다가와) 판돈 다 걸지 말랬더니.

박부장

(반가움과 동시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오~ 데보라~ 여긴 어떤 일이야?

(슬쩍 허리를 감싸며) 나 손이 짹짹 붙네. 오늘 알 좀 낼 것 같아~

데보라 심

(담배 연기를 내뿜고) 총 있다.

박부장

(슬쩍 손을 빼고) 윤대사가 황인철이를 불렀어. 나보겠다고 도쿄에서 와.

데보라 심

지금?

박부장

황인철이 나 구제해 주겠단다. 어떨 거 같아?

잘 하면 한국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각하가 뭘 언질을 줬나 봐.

데보라 심

그래? 서울 그런 분위기 아니던데.. (귀에 대고) 김부장이 기다려보래.

박부장

정말? 김부장 낙동강 오리알 됐다던데.

데보라 심

무슨 소리야. 같이 간 미 의원들이 김부장하고만 미팅했어.

박부장

그래? 윤대사 이 새끼... (문득) 김부장이 진짜 하겠대?

데보라 심

(팔짱 끼며) 요 앞 레스토랑에 존슨이랑 하원 의원 몇이 같이 있거든. 인사하자. 우리도 우리대로 레일 갈아야 해. 부장님 이미지 좀 바꿔야지. 미국 의원들이 박부장님 너무 싫어해.

박부장

한국 의원들도 나 싫어해.

데보라 심

(일으켜 세우며) 빨리. 오늘 밤 판 벌릴 데는 따로 있다고.

박부장

김부장이 정말 하겠대?

데보라 심

선택하세요. 김부장이야. 박통이야.

박부장

... (길들)

75. 호텔 앞 / 밤

데보라 심의 팔짱을 끼고 호텔에서 나오는 박부장.

데보라 심

서울 가보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더라고.

박부장

남산은 어떠냐?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보자 한강수야.

데보라 심

박부장님 어서 오라 손짓하지.

박부장

(뒤돌아보며) 이 자식들 어디 갔어. 술 처먹고 있나.

데보라 심, 앞에 보이는 리무진을 가리킨다.

운전사(프랑스 갱1)가 뒷문을 열어주려 기다리고 있다.

박부장
걸어가는 거 아냐?

데보라 심
나 힐 신었어.

76. 호텔 카지노 / 밤

순식간에 사라진 박부장을 찾는 윤대사.

77. 호텔 앞 / 밤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

데보라 심
(차에 타려다 말고) 어머. 내 모자.

박부장
(차 안에 앉아) 허허. 철칠맞다.

모자를 집으려가는 데보라 심.
그리고 한쪽 뒤에서 등장하는 프랑스 갱들. 데보라 심을 지나쳐 리무진으로 향한다.
갱들이 리무진 양쪽 문을 열고 들어간다.
리무진, 급히 출발한다.
데보라 심, 멀어져가는 차를 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딩그러니 남아있는 데보라 심의 모자.

78. 서울 예술극장 / 낮

공연이 끝나고 모두 떠난 극장에 홀로 앉아있는 김부장.
강창수 수행비서가 다가와서 귀에 속삭인다.
김부장, 고개를 든다. 텅 빈 무대를 응시한다.

79. 파리 교외 숲속 / 새벽

안개가 깔린 숲속 도로에 차가 달리고 있다.

80. 차 안 / 새벽

복면이 씌워진 채 마취에서 깨어나는 박부장.

괴력을 발휘해 양옆에서 포박하고 있는 프랑스 갱들에게 온몸으로 격렬하게 저항한다.

박부장

누구야! 누가 보냈어! 누가 시켰어!

차가 도로를 벗어나며 나무에 앞머리를 쳐박으며 선다.

차 안, 박부장의 입은 피투성이, 오른편 프랑스 갱3이 코를 부여잡고 피를 쏟고 있다.

코를 물어뜯어 뱉는 박부장. 왼편의 프랑스 갱2가 총구로 박용각 머리를 내리친다.

프랑스 갱 2

(불) 이 새끼 완전 미친놈이야!

복면이 반쯤 벗겨진 채 차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박부장.

디룩디룩 살찐 그이지만 날렵하게 전속력으로 도망친다.

항급히 박부장을 뒤쫓는 프랑스 갱 1과 2.

81. 숲속 / 새벽

쫓고 쫓기는 추격전. 뒤엎기는 그들.

살아보겠다고 처절하게 싸우는 박부장. 프랑스 갱들을 제압하고 헐레벌떡 뛰어간다.

82. 파리 교외 마을 / 아침

안개에 포위된 채 아직 잠들어 있는 읍내.

지친 발걸음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박부장.

잠시 후, 골목길에서 등장하는 차.

박부장의 시선이 멈추면, 차에서 내리는 함대용 요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함대용 요원을 바라보는 복잡한 얼굴의 박부장.

문득 자신의 발을 쳐다보면.. 한쪽 구두가 없다.

탕!!

83. 파리 교외 농장 / 아침

프랑스 갱들이 욕을 하며 힘겹게 박부장을 옮긴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사료분쇄기에 박부장을 넣는다.
사료분쇄기의 굉음을 들으며 서 있는 함대용 요원.
어지러운 굉음이 점점 더 거세진다.

84.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낮

인서트) 조용한 청와대 전경.

심각한 얼굴로 담배를 태우는 박통.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지키는 김부장, 곽실장, 비서실장, 전두혁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박통
김부장 생각은 언제?

김부장
... 김영삼 총재 제명을 철회하시고 야당과 대화로 푸셔야합니다.

곽실장
어이 김부장.

김부장
...?

곽실장
유신정권 타도를 외치며 경찰서에 불을 질렀어. 각하한테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박통
...

곽실장
각하. 이것들은 시민이 아니라 폭도들입니다. 부산에 계엄령 선포하시죠.

김부장
계엄을 선포하면 부산에서 양산 마산으로 변질 가능성이 큼니다.

신문을 집어드는 박통. '유신 타도'를 외치는 부산 시민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온다.

곽실장
각하. 탱크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김부장
(저 새끼가..)

박통
참모총장은 어떻게 생각해?

참모총장
(눈치를 살피면)

전두혁 보안사령관
각하. 1공수 여단을 부산에 보내면 조기 진압이 가능합니다.

김부장
각하. 계엄령은 안 됩니다.

곽실장
각하. 공수부대로 때려잡으면 됩니다.

박통
(고민) ... 계엄령 선포해.

희비가 엇갈리는 김부장과 곽실장.

시간 경과. 집무실에서 나오는 사람들. 둘 만 남은 박통과 김부장.

박통
박부장이 실종 됐다고?

김부장
아마 찾지 못할 겁니다.

박통
(언뜻 보이지 않게 지나가는 미소)

김부장
각하. 제가 김영삼을 만나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재고해주십시오.

박통
(문득) 찾지 못하면 그 자식 가져간 돈은?

김부장

네?

박통

내가 그 자식이 있든 없든 뭘 상관이야. 어차피 배신자 새끼.

썰하게 나오는 박통 앞에서 당황하는 김부장.

박통

이미 묻은 지 오래야, 그 자식... 빼간 돈이나 가져 와.

김부장

알아봤지만. 박부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외에는... (박통의 술수에 안 말리려 정신 차리며)

앞으로 좀 시끄러울 겁니다. 미국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고 조용히 시킬 테니 각하도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박통

협조? 김부장 지금 나 협박해?

김부장

...

박통

협박하고 싶으면 내가 훔칠만한 걸 가져와서 흔들어야지.

김부장. 요즘 왜 그래?

김부장

...

박통

제발 내가 달란 걸 가져와.

(담배 불붙이려ライター 달라는 눈짓. 김부장도ライター를 찾지만 없다)

김부장, 얼떨결에ライター를 찾으러 가는데. 걸음이 풀리며 얼굴이 시뻘게진다.

열 받아서 확 돌아보는 김부장.

박통

(부속실 문을 열고ライター를 찾으며) 경호실장 어딴나?

급하게 객실장을 찾는 박통.

85. 주한미국대사관저 / 낮

주한미국대사,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김부장, 시치미 뚝 떴고는 있지만 박통 때문에 열이 받아 담배를 뽕뽕 태운다.

주한미국대사

(영) 파리 경시청이 뒤집어졌어. CIA 말로는 주불 한국 대사까지 얹혀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김부장

(영) 우리도 지금 찾고 있어. 남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야.

주한미국대사

(영) 이렇게 나오면 나도 더는 김부장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고! 워싱턴에서 도대체 한국
뭐냐고 난리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시키질 않냐. 시카고 갱들처럼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고. 니들 진짜 깡이야!

김부장

(영) 다시 한번 말하는데 중앙정보부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주한미국대사

(영) 니네 자꾸 이렇게 나오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한다?

김부장

...?

주한미국대사

(영) 내가 친구로서 충고하는데, 박통은 끝났어. 김부장도 알잖아?

김부장

...

주한미국대사

(영) 우리 한국 뜨면 니네 어떡할래? 미국은 더 이상 박통 안 봐줘.

김부장

(영) 그래서 뭐? 나보고 어찌라고?

주한미국대사

(영) 다음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나서기 전에.

김부장

...

불안한 얼굴로 담배만 태우는 김부장.

86. 차 안 / 해질녘

주한미국대사관저를 빠져나오는 김부장의 차. 생각에 잠겨있는 김부장.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오늘 궁정동에서 대행사가 잡혔습니다.

김부장

몇 시?

강창수 수행비서

6십니다.

김부장

(시간을 확인하고) 궁정동으로 가.

강창수 수행비서

남산으로 모시겠습니다.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각하가.. 괄실장만 부르셨답니다.

김부장

...? 난 안 불렀어?

강창수 수행비서

예..

김부장

...

87. 장마담의 모던바 / 밤

장마담이 연회에 불려갈 작은 마담에게 교육을 시킨다.

장마담
거기서는 원래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는 거야.

작은 마담의 핸드백 안에 도청장치를 심는 김부장.

88. 궁정동 안가 / 밤

비가 온다. 안가 철문 앞에 멈춰서는 중앙정보부의 차.
뒷좌석에 작은 마담과 여가수가 긴장한 채 앉아있다.

89. 안가 본관 집무실 / 밤

감청기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김부장.

의전과장
(들어와) 부장님. 연회가 취소됐습니다.

김부장
...?

의전과장
각하가 감나무집으로 오셨답니다.

90. 안가 감나무집 / 밤

감나무가 있는 작은 규모의 안가. 박통의 차가 마당에 서있다.
빗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김부장.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는 경호실 요원들을 피해 안가 뒤편으로 걸어간다.
김부장,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테라스를 타고서 아슬아슬하게 2층으로 올라간다.

91. 안가 감나무집 2층 / 밤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김부장. 조심스럽게 연회실 옆의 작은 방으로 들어간다.

불박이장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김부장.
연회실과 맞닿은 불박이장 벽에 도청기를 부착한다.
조심스럽게 헤드폰을 끼고 귀를 기울인다.
곧, 박통과 곽실장의 소리가 들린다.

곽실장

(소리) 이 칼라텔레비전을 보급하자고 전자 쪽에서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는데요.

박통

(소리, 잘 안 들림) 국민들이 나를 칼라로 봤으면 좋겠어? 난 그거 싫어.

곽실장

(갑자기 크게 들리는 경박한 웃음소리) 하하하. 각하는 흑백이 어울리십니다.

쭈그리고 듣던 김부장, 욕을 삼킨다.

박통

부산 말이야. 합동수사단 어찌 됐나?

곽실장

시위자 배후에 북이랑 야당이 관계돼 있다.
조사하면 고구마처럼 줄줄이 따라오게 조치해냈습니다.

박통

김부장은 대체 왜 그래.

자기 얘기가 나오자 바짝 귀를 기울이는 김부장.

박통

공수여단 보내라니까 나 노려보는 거 봤어? 비상계엄이야. 지금.
그 인간 왜 그렇게 물러?

곽실장

군이 나서면 지가 깰 데가 없으니까 괜히 그래보는 겁니다.
각하. 김부장은 끝났습니다.

개새끼.. 얼굴이 일그러지는 김부장.
문이 열리며, 경호실 직원이 곽실장을 찾는다.

곽실장

(소리) 각하. 와이프랑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작은 놈이 싸움박질을 했다고 해서요.

박통

(소리) 얼른 갔다 와. 너무 나무라지 말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곽실장이 나가고 혼자 남은 박통. 술을 따라 마신다.

숨소리를 죽이며 그 소리를 듣는 김부장.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에 쓸쓸히 ‘그 때 그 사람’을 부르는 박통.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김부장의 머리에서 빗물이 흘러 눈에 들어간다.

눈을 훔치려다.. 쿵! 벽장에 부딪히는 팔꿈치.

벽에서 난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박통.

긴장하는 김부장. 가만히 벽 쪽을 바라보는 박통. 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보는 두 사람.

박통, 일어난다. 전화기로 간다. 어딘가에 전화를 한다.

전화기 돌리는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김부장.

박통

(소리) 응... 응... 김부장이? 둘이 만나서 뭐했는데?

(듣고 있다가) 내가 끝났다고? 양키새끼가 정말 그랬어? (듣고 있다가) 김부장은 뭐래?

미 대사와 김부장이 만난 사실을 보고하는 전화기 너머 알 수 없는 존재.

신경이 더욱 곤두서는 김부장.

박통

그 새끼도 똑같은 새끼야. 미국 놈들 업고서 지가 날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좋아서 미국에 붙었으면 박부장처럼 미국 가서 살라 그래!

지 친구도 죽인 새끼야! 내가 뭘 믿고 옆에 두나... 백정 놈의 새끼..

김부장의 얼굴이 석회처럼 굳는데,

박통

김부장 이 자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다시 바짝 긴장하는 김부장.

박통

(소리) ...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얼굴이 굳는 김부장. 박부장을 죽이기 전, 박통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다.
김부장의 젖은 머리에서 빗물이 떨어진다. 바닥으로 툭.툭.툭.

92. 궁정동 본관 집무실 / 해질녘

녹취테이프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김부장.

내가 끝났다고? 양키새끼가 정말 그랬어? 김부장은 뭐래? 그 새끼도 똑같은 새끼야. 미국
놈들 업고서 지가 날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좋아서 미국에 붙었으면 박부장처럼
미국 가서 살라 그래! 지 친구도 죽인 새끼야! 내가 뭘 믿고 옆에 두나... 백정 놈의 새끼..
김부장 이 자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강창수 수행비서
(황급히 들어와) 부장님. 아무래도 부산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김부장
...?

93. 헬기 / 밤

부마항쟁이 벌어지는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는 김부장.
전쟁이 난 것처럼 곳곳에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인다.
심각하게 상황보고를 하는 강창수 수행비서.

강창수 수행비서
(큰소리로) 데모대가 방송국까지 점거했습니다.. 시위는 부산에서 마산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고... 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상황이 4.19 때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부장
...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와 강창수 수행비서의 보고가 시끄럽게 뒤섞여,
김부장의 머리가 혼미해지면,

주한미국대사
(소리) 박통은 끝났어. 다음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나서기 전에.

데보라 심

(소리) 박부장한테는 꿈이지만 김부장님한테는 꿈이 아닐 텐데요.

박부장

(소리) 우리가 혁명을 왜 했냐? 목숨 걸고 왜 혁명을 했냐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김부장의 얼굴..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에 머리가 더욱 혼미하면,
또렷하게 들려오는 박통의 목소리.

박통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임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해.

94.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아침

박통의 담배에 불을 붙이는 전두혁 보안사령관.. 돌아가 참모총장 옆에 앉는다.
부마항쟁을 두고 격론을 펼치는 박실장과 비서실장.
잠시 후, 김부장이 조용히 들어와 자리에 앉는다.
차분한 얼굴의 김부장.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박통

부산 갔다 왔다고? 어때?

김부장

...

박통

...?

김부장

그냥 학생 시민들이었습니다.

박통

방송국까지 불태웠어. 그게 그냥 시민들이 아니잖아.

김부장

엄포를 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김총재 복귀시키고 국회랑 순차적으로 푸셔야 합니다.

박통

엄포? 내가 국민들을 협박한다는 거야?

김부장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박통

...?

김부장

부산 마산은 섬이 아닙니다. 서울까지 번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박통

그걸 막으라고 김부장이 있는 거야.

김부장

산불을 어떻게 막습니까. 불은 산을 다 태워야 끝납니다.

박통

(이 자식이..)

곽실장

야!! 중정부장이 그거 하나 못 잡고서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비서실장 말대로 빨갱이들 시위 번지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합니다.

비서실장

(곽실장에게)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 계엄군 늘리네 마네 이 얘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
4.19 때 잊었나?

곽실장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잡아야지. 캄보디아에서는 삼백만명도 죽었는데 우리가 뭐 백만 이백만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큰 일 나겠어.

박통

곽실장 말이 맞아. 자유당 때야 채선오랑 박광혁이 발포명령을 내려서 사형을 당했지만.
이번에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면? 누가 대통령인 나를 사형시킬 거야? 응?

김부장, 자기의 귀를 의심하는 얼굴로 박통을 본다.

곽실장

각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안 그래, 전장군.

전두혁 보안사령관

예!

김부장

...

곽실장

(시간을 확인하고) 각하, 애기도 끝났는데.
이제 그만 삼교천 준공식 현장으로 출발하시죠.

95. 청와대 헬기장 / 아침

도착하는 차에서는 내리는 박통과 사람들.
곽실장이 박통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한다.
김부장을 힐끔 보고 알았다는 듯 끄덕이는 박통.
그리고 헬기를 향해 걸어가는 김부장을 가로막는 곽실장.

김부장

...?

곽실장

(큰 소리로) 각하가 남아있으래. 자리도 없고.

김부장

...

헬기가 날아오른다.
홀로 남은 김부장. 바람이 몰아친다. 점점 멀어지는 헬기.

96. 주한미국대사관저 / 낮

뉴욕타임스를 건네는 주한미국대사.
타이틀 기사. '미국 정부 한국 전 정보부장 실종에 조사 착수'

주한미국대사

(영)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경고했잖아.

김부장

(영) 어디까지 갈 건데?

주한미국대사
(영) 그건 김부장한테 달렸지.

김부장

...

97. 중앙정보부 / 낮

계단을 오르는 김부장. 긴 복도를 뚜벅뚜벅 걸어간다.

/부장실.

강창수 수행비서
남산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은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부장
왜?

강창수 수행비서
동상에 금이 갔다는 대요.

김부장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손 날 맞춰 날 잡은 거 아냐? 그게 오늘이라며?

강창수 수행비서
예. 10월 26일.

대통령 직통 전화기가 울린다. 전화를 받는 김부장.

김부장
(수화기를 들고) 예. 각하.

곽실장
(소리) 오늘 저녁 6시에 대행사가 있으니까, 김부장도 참석하십시오.

김부장

...

곽실장
(소리) 그리고 빨갱이들 몇 명 잡아서 부산이랑 엮어.

탱크로 확 밀어버리게.

김부장

...

마치 대통령처럼 김부장에게 명령하는 곽실장.

전화를 끊고 얼굴이 돌처럼 굳는 김부장. 다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김부장

... 참모총장 연락해.

강창수 수행비서

... 예 알겠습니다. (나가면)

김부장

...

98. 궁정동 안가 / 해질녘

도착하는 차에서 내리는 박통과 곽실장.

기다리고 있던 김부장 비서실장과 함께 안가로 들어간다.

99. 안가 2층 연회실 / 해질녘

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사람들.

박통

몇 시 뉴스야?

곽실장

조금 있다 7시 뉴스에 나올 겁니다.

박통

김부장.

김부장

예. 각하.

박통

오늘 이 자리는 김부장을 위해 내가 주선한 거야.

김부장

...

박통

그동안 섭섭했지. 한잔하지. (술을 따라준다)

김부장

...

여자 둘이 들어온다. 한 사람은 가수고. 한 사람은 여대생이다.

여가수가 김부장에게 인사를 한다.

하지만 김부장은 딴 생각에 빠진 듯 응답이 없다.

곽실장

(김부장에게) 얼굴 좀 펴. (쫓쫓.. 혀를 차며 샷대질을 한다) 뭘 잘했다고..

김부장

...

100. 안가 뒷길 / 밤

안가에서 나오는 김부장. 차에서 대기 중인 강창수 수행비서가 다가온다.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어디 가십니까?

김부장

본관에 좀 갔다 올 테니까.. 강대령, 10분 뒤에 이대령 데리고 구관 뒷문으로 와.

101. 본관 집무실 / 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참모총장. 지루한 듯 시간을 확인한다.

김부장

(들어와) 장총장 미안합니다.. 갑자기 각하께서 오셔서..

참모총장

그럼 다음에 보시죠.

김부장

아닙니다. 내가 금방 끝내고 올 테니까. 내려가서 먼저 식사하시죠.

참모총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김부장.

시간 경과. 금고에서 ppk권총을 꺼내 탄창을 끼우는 김부장.

102. 안가 뒷길 / 밤

본관에서 나와 구관으로 걸어가는 김부장.

기다리고 있던 강창수 수행비서와 의전과장을 만난다.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보여주는 김부장.

김부장

나라가 잘못되면 다 죽는다. 각오는 돼 있겠지.

강창수 수행비서

(머뭇거리면)

김부장

참모총장도 와있다.

의전과장

각하도 포함됩니까?

김부장

그래. 오늘 해치운다.

강창수 수행비서

오늘은 경호원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시죠.

김부장

안 돼. 보안이 샌다. 똑똑한 애들로 두세 명 준비시켜.

103. 안가 / 밤

계단을 올라가는 김부장.. 연회장을 향하면.. 여가수의 노랫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온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김부장.

여가수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 때 그 사람~

문이 닫히고.. 여가수의 노랫소리가 흐르며 몽타주가 펼쳐진다.

104. 몽타주 / 밤

암살을 준비하는 강창수 수행비서와 의전과장.
권총을 장착하고 지정된 포인트에 위치하는 중정 요원들.

대기실에서 미군방송을 보며 식사를 하는 경호실 요원들.
문 열고 들어오는 의전과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호실 요원들.
창밖에 몸을 바짝 기대고 대기 중인 중정 요원들.

105. 안가 / 밤

노래가 끝나고.. 브라보~ 박수소리.

김부장

각하.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박통

(술을 받으면)

김부장

각하 기억하십니까. 그날 새벽?

박통

...?

김부장

각하를 모시고 한강 다리를 중간쯤 지나는데.. 저기 딱 헌병대 저지선이 보이는 겁니다.
각하를 따라 지프에서 내려 두벅두벅 한강 다리를 건너는데..

박통

슈우우~ 총알이 날아왔지. (웃음)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궂볼에 총알 날아가는 소리가 스쳐..

김부장

그때 각하가 제게 물으셨죠. 김대령 어떡할까?

박통

(센치해져서) 사나이 가는 길 앞에 웃음만이 있을 소냐~
결심하고 가는 길 가로막는 폭풍이 어이없으랴~ 각하 가시죠!
김부장이 그랬지.

곽실장

(김부장을 보고) 그땐 배포가 있었어! 근데 요즘 쪼그라들어서. 쫓쫓..

김부장

그때 만약.. 그 다리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곽실장

(피식) 여기 아무도 없지.

김부장, 빈 잔에 술을 쿵쿵 따르더니 빈자리에 놓는다.
박통이랑 곽실장 비서실장 무슨 짓인가 쳐다본다.

김부장

자, 이 자리에 없는 박부장을 위하여!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김부장.

김부장

왜 다들 음복 모르십니까? 이렇게 마시면서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거요.
박부장과 우리가 원래 하나가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각하.

박통

...

곽실장

죽고 싶냐?

김부장

이딴 버려지 같은 새끼를 옆에 두고 정치를 하시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박통
지금 뭐하는 거야!

김부장
각하. 이제 그만하시고 해야하십시오.

박통
...?

곽실장
야! 죽고 싶어!!

김부장
각하. 해야하십시오.

곽실장
이 새끼 따라 나와! 죽여버리겠어!!

박통
가단있어!

곽실장
(씩씩거리며 김부장을 노려보면)

박통
김부장. 내가 널 왜 그 자리에 앉힌 줄 알아?

김부장
...

박통
친구도 죽인 놈이 어디서 고고한 척을 하고 있어.

김부장
...

박통
제발 니 일이나 똑바로 해.

김부장

... 각하. 혁명을 왜 하셨습니까?

박통

...

김부장

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혁명을 했습니까?

박통

... (대답 못한다)

김부장

백만 이백만 탱크로 밀어버린다고? 각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곽실장

이 개새끼가!! 너 정말로 죽고 싶어!!

김부장

이런 버러지 같은 새끼!

총을 꺼내는 김부장, 곽실장의 얼굴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순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하는 곽실장. 탕! 곽실장의 손목을 관통하는 총알.

탕! 그리고 박통의 가슴에 박히는 총알.

김부장이 곽실장을 향해 재차 방아쇠를 당기면, 격발이 되지 않는다.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는 비서실장. 경호원을 외치며 화장실로 숨는 곽실장.

권총이 고장 나서 계속 노력쇠를 전진 후퇴시키는 김부장.

/탕! 탕!! 경호실 요원들을 제거하는 중정 요원들. 순간 안가에 불이 꺼진다.

어둠 속 계단을 미친 듯 뛰어 내려가는 김부장.

김부장

총 가져와! 총!!

다시 불이 켜지고, 1층에 있는 의전과장의 총을 건네받는 김부장

김부장

(탄창을 확인하며) 경호원들은?

의전과장

다 처리했습니다.

김부장
불은 왜 꺼진 거야?

다시 미친 듯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김부장.
연회장으로 들어가면, 객실장이 경호원을 찾으며 문갑을 방패삼아 나온다.
문갑 중간으로 총을 쏘서 넣는 김부장.
탕! 객실장의 복부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문갑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지는 객실장.
김부장 뚜벅뚜벅 박통을 향해 걸어간다.
여자들이 총에 맞아 쓰러진 박통을 부축하며 울고 있다. “각하.. 각하...”

박통
난.. 괜찮아...

김부장, 박통의 머리에 총을 겨눈다. 여자들이 도망간다.
박통, 희미하게 감기는 눈으로 김부장과 눈을 맞춘다.

김부장
... 각하를 혁명의 배신자로 처단합니다.

탕!! 김부장의 얼굴에 튀는 피. 얼음처럼 굳는 김부장.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 밖으로 뛰어나가는데,
쿵! 문 앞에 고여 있는 객실장의 피에 발이 미끄러져 넘어진다.
다시 일어나 황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김부장.

106. 안가 앞마당 / 밤

안가에서 튀어나오는 김부장.

강창수 수행비서
(다가와)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김부장
어 다 끝났어. 참모총장 데리고 남산으로 간다.

107. 본관 앞마당 / 밤

참모총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는 김부장과 강창수 수행비서.

참모총장
무슨 일입니까.. 총소리가 난 거 같은데..

김부장
(윗옷을 입으며) 가면서 얘기합시다.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참모총장을 태우고 차에 오르는 김부장.

의전과장
(달려와) 부장님.

김부장
어 수고했어. 잘 정리해. (차에 타며) 남산으로 가자.

강창수 수행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김부장.

의전과장
뭘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야?

108. 달리는 차 안 / 밤

참모총장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부장
(엄지를 거꾸로) 각하가 저격당하셨습니다.

참모총장
(놀라) 예? 어찌다가요?

김부장
그러게요..

입 안이 쓴지 사탕을 깨물어 먹는 김부장. 참모총장에게도 사탕을 건넨다.
참모총장, 온통 피가 묻은 김부장을 보고 몰래 사탕을 시트 밑에 버린다.

김부장
(문득) 내 구두 못 봤어? (구두를 찾으려) 구두가 없네..

김부장, 양말에 묻은 피를 손으로 닦아본다.

피가 묻은 손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펴보았다 하는 김부장.

참모총장

김부장, 육본으로 갑시다. 남산에 가서 뭐합니까.
일단 육본에 가서 계엄령부터 선포합시다. 북의 동향도 파악하고.
(강창수 수행비서에게) 야, 육본으로 가자.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어디로 갑니까?

김부장

...

강창수 수행비서
부장님, 남산입니까? 육본입니까?

김부장

...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남산으로 향하다가 육본을 향해 유턴한다.

109.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 밤

암흑 속,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온다.
대통령 책상 위에 놓여있는 스탠드를 켜면, 전두혁 보안사령관이다.
병풍 뒤 금고로 간다. 4개의 대형 금고.
금고 번호를 모두 아는 전두혁 보안사령관, 금고들을 연다.
돈 봉지와 박통의 비자금 관리 장부를 큰 가방에 집어넣은 후 가방을 들고 집무실을 나간다.
문득 멈춰 서서 뒤돌아보는 전두혁 보안사령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는 대통령의 빈자리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응시하면,
군인들의 합창소리가 들려온다.

110. 과거 혁명성공파티 / 밤

모두가 함께 있던 그곳 그 시간. 군복을 입고 결연하게 군가를 합창하는 군인들.
승리감에 취해 힘차게 노래를 부르는 그들.
그리고 촛불이 켜진 축하케이크가 등장한다.
박통을 향해 전진하는 촛불.
군인들의 합창이 거세지면.. 촛불 앞에 이글거리는 얼굴들.

박통, 박부장, 곽실장, 그리고 김부장.

후~ 촛불을 끄면, 암전.

끝.

쏘레어파트너스(유) 제출영